

2022 고조선 Conference

근대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

흥익재단

프 로 그 램

접수 [09:00-09:30]

개회식 [09:30-09:50]

개회사 문치웅(홍익재단 이사장)

행사소개/내빈소개

진행: 박성우(홍익재단)

발표 [10:00-15:50]

사회: 나행주(건국대)

제1발표 [10:00-10:40]

환인·환웅 부정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대한 탐구 - 전진국(충북대)

제2발표 [10:40-11:20]

이마니시 류의 단군·기자 연구와 문제점 - 조원진(세종대)

제3발표 [11:20-12:00]

일제강점기 일본의 단군 부정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론

- 오다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점심시간 [12:00-13:30]

제4발표 [13:30-14:10]

《삼국유사》〈고조선〉조의 古記論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5발표 [14:10-14:50]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역사성과 하백녀 - 선석열(부경대)

휴식 [14:50-15:10]

제6발표 [15:10-15:50]

근대 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 - 윤병모(성신여대)

종합토론 [15:50-16:55]

좌장: 이근우(부경대)

폐회식 [16:55-17:00]

진행: 박성우(홍익재단)

2022 고조선 Conference

근대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

목차

【제1발표】 환인·환웅 부정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대한 탐구	3
▶ 전진국(충북대)	
【제2발표】 이마니시 류의 단군·기자 연구와 문제점	27
▶ 조원진(세종대)	
【제3발표】 일제강점기 일본의 단군 부정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론 -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	49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제4발표】 《삼국유사》〈고조선〉조의 古記論	71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5발표】 단군-부루-주몽 계보의 역사성과 하백녀	109
▶ 선석열(부경대)	
【제6발표】 근대 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 -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	125
▶ 윤병모(성신여대)	

2022 고조선 Conference
근대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

**【제1발표】 환인 · 환웅 부정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대한 탐구**

▶ 전진국(충북대)

【제2발표】 이마니시 류의 단군 · 기자 연구와 문제점

▶ 조원진(세종대)

**【제3발표】 일제강점기 일본의 단군 부정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론**

-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1 환인·환웅 부정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대한 탐구

전진국(충북대)

목 차

1. 머리말
2. '환인'의 명칭 문제
 - 2.1 환인과 불교의 석제환인
 - 2.2 제석 신앙과 일연의 가작설
3. 환웅신화와 환웅의 역사성
 - 2.1 다양한 환웅신화와 서사의 중요성
 - 3.2 환웅신화의 여러 화소와 환웅의 역사성
4. 맺음말

1. 머리말

전통시대 고조선의 역사는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 시기 구분하여 단계별로 역사적 의미 및 정통성을 부여해 왔다. 그러한 3조선 설은 李承休의 『제왕운기』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러한 시간은 근래까지 이어져 왔으나, 기자에 대한 실체 및 동래설이 부정되면서 '기자조선'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학계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각종 교과서 및 개설서에서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구분하여 서술한다. 그러나 고조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사를 특별히 '단군조선'으로 지칭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단순히 '고조선'이라 한다. 이는 '단군'이 어디까지나

신화·전설 속 인물이고 단군 즉위 연대를 믿지 못하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단군조선’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단군신화는 실제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고 단군은 실존의 고조선 왕을 신화한 한 것임을 많은 이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단군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실존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단군 이전 환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식이 지배적이라 하기 어렵다. 더하여 환인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의 석제 환인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것을 줄인 명칭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 글에서는 환인과 환웅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하며 후대에 가작하였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데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가 주요했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접근 하도록 하겠다.

2. ‘환인’의 명칭 문제

2.1 환인과 불교의 석제환인

일본인 연구자들은 대체로 단군신화는 불교 경전에서 많은 화소를 끌어와 승려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지론 속에서 단군신화를 접근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환인 역시 불서에 등장하는 ‘釋提桓因’을 차용한 것이라 한다.

白鳥庫吉은 단군을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우두전단·전단목에 빗대어 만들어낸 존재라 하는 입론 위에서, 환인 역시 여러 불서에 확인되는 ‘제석 환인’을 차용하여 만들어낸 화소라 한다. 특히 阿毗曇에 釋提桓因의 태자가 栴檀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원용하여, ‘환인의 손자 단군’이라는 단군 신화의 줄기를 형성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한다.¹⁾ 아비담은 『佛說立世阿毘曇論』이고, 그 경전 중에 다음의 구절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東京: 學習院大學 ; 1970, 『白鳥庫吉全集』 3, 東京: 岩波書店.

<가-1> 석제환인이 이 좌석에 올라가 앉는다. 좌우 양쪽에 각각 16천 왕이 행렬을 지어 앉는다. 나머지 모든 천왕들은 그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순서에 의하여 앉는다. 이때 제석천에는 두 명의 태자가 있다. 첫째는 梅檀이고, 둘째는 脩毘羅이다. 이 도리천의 2대 장군은 32천 있어 좌우로 나누어 앉는다.²⁾

『불설입세아비담론』은 559년 陳의 인도 출신 학승 眞諦가 한역한 論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세계의 성립과 괴멸에 대해 설한 것인데, 그중 인용한 제8 天住處品은 석제환인 등 여러 천신의 거주처를 설하는 내용이다.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에 善法堂이 있는데, 그곳 獅子座에 석제환인이 앉고 2명의 태자와 사천왕 등이 열을 지어 앉으면, 4천왕과 여러 대신은 세간을 두루 다니며 본 것을 석제환인에게 보고한다고 한다.³⁾

白鳥庫吉은 결론적으로 단군신화는 고구려 장수왕 때(413-491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불설입세아비담론』은 559년에 한역되었으므로, 『불설입세아비담론』의 석제환인-전단의 관계를 차용하였다 함은 사실상 연대상 맞지 않는다.⁴⁾ 무엇보다도 『불설입세아비담론』에서는 석제환인의 첫 번째 태자가 전단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군신화의 환인-환운-단군의 관계와는 사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白鳥庫吉은 또는 『지도론』과 『잡아함경』에서 차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직접 석제환인이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그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가-2> 석제바나민은 땅에 의지해 머물며, 부처님도 역시 땅에 의지해 머무셨다. 그는 항상 부처님께 찾아왔으므로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⁵⁾

<가-3>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 제신 곳에 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나서 한쪽에 물러나 서서 아뢰었다. 세존이시

2) 『佛說立世阿毘曇論』 卷2, 天住處品 第8, “釋提桓因昇座而坐, 左右二邊, 各十六天王行列而坐, 其餘諸天隨其高下依次而坐. 時天帝釋有二太子一名梅檀, 二名脩毘羅. 是忉利天二大將軍, 在三十二天左右而坐.”

3)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불설입세아비담론』 해제.

4) 이근우, 2022,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239쪽.

5) 『大智度論』 初品中十方菩薩來釋論 第十五, “答曰, 釋提婆那民依地住, 佛亦在地住, 常來佛所, 大有名稱, 人多識故.”

여, 무슨 인연으로 釋帝桓因의 이름을 석제환인이라고 하였습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석제환인은 본래 사람으로 있을 때 頓施를 행하였다. 가난하고 궁색하며 고달프고 괴로워하는 沙門이나 婆羅門이 살기를 구해 길에서 구걸할 때, 음식·재물·곡식·포목·꽃·향·장엄거리·침구·등불 등을 보시하되 그러한 보시를 능히 감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석제환인이라고 하였느니라.⁶⁾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석제환인은 생전에 풍부한 재력으로 보시를 잘했던 인물이었다고, 입멸 뒤에도 도리천에서 자주 인간세계로 내려와 부처님을 찾아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白鳥庫吉은 『잡아함경』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문장을 대폭 줄이고, “보시를 능히 잘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堪能作主)”을 강조하며 이를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360여 가지 인간사를 주관하였다”는 내용과 연결시킨다. 『잡아함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석제환인과 다른 맥락으로 인식하여, 단군신화의 환인에 관한 일부 내용과 억지로 결부시킨 감이 없지 않다.

애초 석제환인이 인간세계의 사람이었다가 입멸 뒤 하나의 신이 되었다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더하여 석제환인이 단군신화에서 환인으로 또는 환웅으로 차용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여 양단을 모두 취하는 모순적인 서술도 확인된다.

백조고길 이후 일제강점기 단군신화를 연구한 학자들 역시 ‘환인’과 그에 대해 주 ‘제석’에 대한 불교적 이론을 서술한다. 즉 제석은 수미산 꼭대기에 살며 33천을 통령하는 불법의 수호자이며, 정식의 이름은 석가제환인이라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석가제환인다라를 줄여 ‘석제환인’이고, 다시 더 간단히 줄여 ‘환인’이라 한다고 한다.⁷⁾

그러나 근래 여러 연구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석가제환인다라’는 ‘석제환인’으로 줄일 수 있고 실제 ‘석제환인’이 여러 불서에 종종 확인되기도 하지만, 이를 더 줄여 ‘환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석가제환인다라’라는 명칭의 구조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불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용례이다.

석제환인의 정식 명칭은 ‘釋迦提桓因陀羅’이고, 산스크리트 원문은

6) 『雜阿含經』卷第四十, “時有異比丘來詣佛所, 稽首佛足, 退住一面, 白佛言. 世尊, 何因, 何緣釋提桓因名釋提桓因. 佛告比丘, 釋提桓因本爲人時, 行於頓施, 沙門婆羅門, 貧窮困苦, 求生行路乞, 施以飲食, 錢財·穀·帛·華香·嚴具·牀臥·燈明, 以堪能故, 名釋提桓因.”

7) 小田省吾, 1924, 「壇君傳說に就て」 『朝鮮史講座』, 京城: 朝鮮史學會.

Śakradevanamindra이다. 산스크리트어 Śakra는 釋迦로, devanam는 提桓으로, indra는 因陀羅로 音譯된다. 이를 뜻으로 풀면 Śakra(釋迦)는 能, devanam(提桓)은 天, indra(因陀羅)는 帝로 漢譯되어 ‘能天帝’라 하고, 이를 흔히 ‘帝釋天’이라 한다.⁸⁾ 즉 석제환인의 정식 명칭 ‘석가제환인다라’는 석가/제환/인다라의 세 단어의 합성어로, 이를 ‘환인’으로 줄이는 것은 그 의미를 올바르게 담지 못한 것이므로, 환인으로 줄여 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더하여 석제환인은 본래의 베다 신화에서는 인드라신(Indra)에 해당하며, 불경에서는 수미산 정상에 있는 忉利天의 주인으로 33천의 천주이다. 과거 세에 字는 憍尸迦, 이름은 阿摩揭陀였다고 한다.⁹⁾ 이와 같은 불교의 석제환인은 단군신화의 환인과 성격 및 행적이 완전히 다르다. 앞서 『지도론』과 『잡아함경』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듯이 석제환인은 전생에 사람이었고 보시를 잘하여 도리천의 신이 되었다. 그리고 起世經에서 제석은 항상 아수라와 투쟁하는 관계이고 사람들의 선악을 관찰하는 도리천 최고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그러한 석제환인의 성격 및 성격은 단군신화의 환인과는 많이 다르다. 환인은 처음부터 천상 세계의 최고신으로 그 기원과 성격이 석제환인과 많은 차이가 있다.¹¹⁾ 과연 고구려 또는 고려의 불교도가 석제환인의 그러한 어의 및 성격을 알지 못하였을까? 석제환인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었더라면, 이를 단군신화의 환인과 동격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환인을 불서의 석제환인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인식은 불교의 석제환인에 관한 자세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름이 일부 겹치는 것에 의존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화·사상사를 연구한 高橋亨(1878~1967)은 본래 단군신화는 고대부터 있었던 북방 지역의 신화로, 원초적인 내용은 신인 단군이 하늘에서 寧邊 妙香山 檀木 아래로 내려오고 사람들이 숭배하여 군장이 되었다는 식의 간단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그런데 후대 불교적 운색이 더해지는데, 그것이 환인에 관한 이야기라 한다. 즉 불교

8) 안지원, 2011,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31쪽.

9) 가산불교문화연구원, 『伽山佛教大辭林』 卷13,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1, 864쪽.

10) 김성순, 2018, 제석신앙의 시공간적 발현 -삼장육제일의 제법과 선법당- 불교문예연구 10, 225쪽.

11) 윤성찬, 2016, 「단군신화의 제석과 불교의 제석천의 연관성 연구」 『고조선단군학』 34, 86쪽.

에서 하늘의 왕인 제석천(석제환인)을 단군의 조부 환인으로 창출하여, 마침내 단군을 불교 안으로 끌어들여 호법신앙으로써 예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군신화가 불교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계기는 단군신화에 불교의 제석천 즉 환인을 추가하여 이를 단군의 조부로 하는 불교적 윤색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삼국유사』의 찬자 一然의 서술이라 추정한다.¹²⁾

高橋亨은 이후의 글에서 단군신화는 3가지 목적성을 갖고 발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불교와의 연관성이라 한다. 즉 단군을 제석천과 결합시켜 단군 숭배를 불교 신앙 안으로 넣으려 하고, 불교 신앙과 원시 신앙과의 융화를 꾀했다고 한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의 단군신화에서 환인·환웅·단군 3대를 나란히 하고 환인을 “제석을 이른다”고 한 것이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여, 『삼국유사』 찬자의 작위성을 거듭 강조한다.¹³⁾

한편, 高橋亨의 논고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내용은 西山大師 休靜(1520~1604)의 『淸虛集』에 있는 「妙香山法王臺金仙臺二菴記」를 인용하여, 단군신화의 원형을 고찰하려 한 부분이다. 그는 「묘향산법왕대금선대이암기」에 등장하는 ‘석제환인’을 확대해석하여, 완전한 형태의 단군신화가 형성되기 이전 묘향산에는 삼국시대부터 불교 관련 설화가 있었고, 그것이 융합되어 묘향산을 배경으로 하는 단군신화가 고려 말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에 대한 근거로 金富軾이 지은 「妙香山碑文」에 단군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은 단군신화의 형성 시점이 고려 후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高橋亨의 가설에 크게 동조하며 논리를 한층 발전시킨 연구자는 小田省吾(1871~1953)이다. 그는 『청허집』에 기재된 묘향산의 석제환인 관련 내용을 찾아내어, 그를 통해 완결의 단군신화 이전 그 원형의 전설이 있었음을 말하는 高橋亨의 업적 및 견해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신라고기에 등장하는 묘향산의 ‘석제환인’을 묘향산의 산신이라 하며, 묘향산의 산신신앙 및 그에 대한 전설이 단군신화로 발전하였다고 한다.¹⁴⁾ 그러한 논점에서 그는 단군신화의 단군 역시 묘향산의 산신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高橋亨과 小田省吾의 견해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12) 高橋亨, 「檀君傳說に就きて」 『同源』, 東京: 同源社, 1920,

13) 高橋亨, 「三國遺事の注及檀君傳說の發展」 『朝鮮學報』 7, 奈良: 朝鮮學會, 1955 ; 김진광 번역, 「삼국유사의 주(註)와 단군전설의 발전」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148쪽.

14) 小田省吾, 1924, 「檀君傳說に就て」 『朝鮮史講座』, 京城: 朝鮮史學會.

주요 근거 자료로 삼은 『청허집』(신라고기)에 수록된 묘향산의 석제환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高橋亨이 찾은 『청허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1> 新羅古記에 이르기를, 唐 貞觀 초에 한 神僧이 백두산에서 묘향산 大毘盧王의 북쪽으로 들어왔다. 芙蓉峯을 얻어 봉우리의 4개의 대중 2개의 대에 암자를 높이 세워 그곳에 살며 도를 얻고 도에 즐거이 하였다. 동쪽의 암자는 法王臺라 하여 釋迦尊像을 안치하고, 서쪽의 암자는 金仙臺라 하여 彌陀尊像을 안치하였다. 동쪽을 향해 석가존상에게 예배하고, 서쪽을 향해 미타존상에게 예배하였다. 아침저녁으로 그와 같이 하였다. 法王 동쪽에 대가 하나 있어 散花臺라 하는데, 항상 釋提桓因이 꽃을 뿌린다. 金仙臺 서쪽에 대가 하나 있어 極樂臺라 하는데, 乾闥婆王이 항상 음악을 연주한다. 산화대 북쪽에 샘이 있어 감로수라 하고, 극락대 북쪽에 있는 샘은 芋筒水라 한다. 마시면 반드시 극심한 괴로움을 덜게 하고 청량함을 얻는다.¹⁵⁾

『청허집』의 <妙香山法王臺金仙臺二庵記>는 묘향산을 배경으로 하는 불교 연기 설화의 일종이다. 그리고 『신라고기』를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고려 이전 그 이야기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묘향산법왕대금선대이암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석제환인’은 그다지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乾闥婆王’과 대치를 이루는 묘향산의 여러 諸佛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석제환인’만을 부각하여 그것을 유일한 묘향산 산신으로 여기는 경향을 일단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석제환인이 여러 제불 중 하나라는 전반적인 정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그 석제환인이 단군신화의 환인으로 차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과연 <묘향산법왕대금선대이암기>가 단군신화보다 앞선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는 단군신화가 고려후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선입전에서 접근하는 확정편향의 논지 전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는 『古記』를 인용한 것이고,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 설화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보면, 결코 <묘향산법왕대금선대이암기>의 이야기가 먼저라고 할 수 없다. <묘향산법왕대금선대이암기>에 등장하는 ‘석제환인’은

15) 『淸虛集』 卷6, 妙香山法王臺金仙臺二庵記, “新羅古記云, 唐貞觀初, 有一神僧來, 自白頭山, 入妙香山大毘盧王北. 得芙蓉峯, 峯有四臺中二臺, 卓菴居焉. 得道於斯, 樂道於斯. 東菴曰法王臺, 安釋迦尊像焉. 西菴曰金仙臺, 安彌陀尊像焉. 向東拜釋迦尊像焉, 向西拜彌陀尊像焉. 朝焉而如是, 夕焉而如是也. 法王東有一臺, 其名曰散花臺. 釋提桓因常散花焉. 金仙西有一臺, 其名曰極樂臺, 乾闥婆王常奏樂焉. 散花北有泉, 曰甘露水. 極樂北有泉, 曰芋筒水也. 飲之者, 必除熱惱而得清涼也. 庵也, 非上根大智者, 莫能居焉云.”

오히려 단군신화의 ‘환인’ 과 별도의 존재이며, 그에 대한 나름의 또 다른 전설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2.2 제석 신앙과 일연의 가작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환인을 곧 불교의 석제환인이며 그것에서 따온 명칭으로 여기는 이유는 『삼국유사』에서 환인에 대해 “제석을 이른다”고 주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대표적으로 今西龍의 견해를 보겠다.

단군신화 형성에 관한 今西龍의 전반적인 논조는 고려 인종~고종 때에 단군신화가 만들어지는데, 1차적으로 평양의 仙人王儉 연기설화가 먼저 작성되고, 그것에 2차적으로 당시 유행하였던 제석신앙과 전단의 약사신앙이 결합되어 각각 환인과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안에서 환인에 대한 해석은 “제석을 이른다”는 『삼국유사』주를 들어 환인을 곧 불교의 ‘제석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法華經』에 ‘환인’의 명칭이 종종 나타나고, 『고려사』에서 왕이 帝釋院에 행차하거나 兵亂과 事變이 일어나면 帝釋道場을 열어 息災를 기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하며, 고려시대에 제석신앙이 성행했음을 설명한다. 더하여 李能和(1869~1943)의 傳言으로 조선 시대와 근세에 사찰과 민간에서 제석신앙 및 그와 관련된 풍속이 성행하였음을 소개한다. 그리하여 제석환인이 도교의 天尊과 같은 신으로 여겨졌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단군신화의 환인은 불서의 석제환인이며, 이는 고려 시대 이후 성행한 제석신앙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존재임을 확신한다.¹⁶⁾

고려시대에 제석신앙이 유행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궁궐 안에 내제석원과 궁궐 밖에 외제석원이 있었고, 왕권의 신성화와 호국신앙으로써 제석도량이 종종 개설되었다. 무신정권기 제석은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절대신으로 여겨져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원갑섭기 이후 왕실의 제석신앙은 소멸하고 점차 무속화되어 갔다.¹⁷⁾ 왕실에서 성행한 제석신앙은 곧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에서는 인간세계의 복리를 지켜주고 생전의 선악을 관찰하며 사후 심판의 신으로 여겨졌다.¹⁸⁾

16) 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1, 京城: 靑邱學會 ; 1970, 『朝鮮古史の研究』, 京城: 國書刊行會, 29~30쪽.

17) 안지원, 2011, 『개정판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73~297쪽.

그러나 제석신앙은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신라 진평왕 때 (579~632년)부터 고려 시대 내제석궁과 같은 內帝釋宮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1> 제26대 백정왕의 시호는 진평대왕이고 김씨이다. 대건 11년 (579) 8월에 즉위하였는데 키가 열한 자였다. 왕이 내제석궁<천주사라고도 하는데 그 왕이 세운 절이다>에 행차하는 길에 돌계단을 밟았는데 그 디딤돌 세 개가 한꺼번에 부러졌다. 왕은 그 돌을 그대로 두어 뒷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일렀다. 그 돌은 성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5개의 부동석 중 하나이다.¹⁹⁾

위 사료에 따르면, 진평왕 때의 내제석궁은 天柱寺라고도 하여 그 왕 때에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경주의 천주사는 소지마립간 때(479~500) 梵修僧을 죽인 곳이라 하였다.²⁰⁾ 소지마립간 때 분수승을 죽인 일은 『삼국유사』 사금갑 조에 자세히 전하는데, 거기서는 “內殿 梵修僧”이라 하였다. 사금갑 조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함께 조합하여 보면 진평왕 때 내제석궁의 기원은 궁궐 안에 있었던 내전·내불당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²¹⁾

진평왕이 내제석궁을 만들고 그곳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은 제석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것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진평왕이 밟은 돌계단이 무너지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는 것은 왕으로서 강력한 힘의 소유자임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하여 진평왕은 왕실을 ‘진흥왕-동륜태자-진평왕’으로 이어지는 제한된 근친자로 한정하여 이들을 성골로 칭하며 불경에 나타나는 찰제리종의 진중설을 차용하여 신성화하였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진평왕은 자신의 왕실을 석가 왕실과 동일시하며, 부처가 제석의 호위를 받는 것과 같이 자신 역시 제석의 호위를 받는 부처와 같은 존재로 부각시켰던 것이다.²²⁾

18) 김성순, 2018, 「제석신앙의 시공간적 발현 -삼장육제일의 재법과 선법당-」 『불교문예연구』 10, 224~225쪽.

19) 『三國遺事』 卷1 紀異 2, 天賜玉帶, “第二十六白淨王, 諡眞平大王, 金氏. 大建十一年己亥八月即位. 身長十一尺, 駕幸內帝釋宮<亦名天柱寺, 王之所創>, 踏石梯, 三石並折. 王謂左右曰, 不動此石, 以示後來. 卽城中五不動石之一也.”

2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尙道 慶州 佛宇, “天柱寺, 在月城西北. 俗傳炤智王射琴匣而倒, 乃是寺僧也. 其北有雁鴨池.”

21)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教史研究』, 민족사, 156~157쪽.

22) 안지원, 2011, 『개정판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42~250쪽.

한편, 제석의 이름을 가진 사원으로는 백제 무왕 때(600~641) 익산에 창건된 帝釋寺가 유명하다.²³⁾ 제석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무왕 때 백제에 『金剛經』이 들어오고 그를 통해 불교의 제석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게 되며, 천신인 제석을 곧 왕으로 동일시하는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²⁴⁾

진평왕은 제석의 호위를 받는 부처로, 무왕은 곧 도리천의 제석으로 각각 다르게 제석신앙을 활용했지만, 어쨌든 그 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7세기 이미 삼국에 제석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석은 그 신격이 천신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다른 어는 신보다 비중 있게 취급되고 고유의 천신신앙과 융합 또는 그것을 대처하기 쉬운 신앙이었다. 제석이 거주하는 도리천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 꼭대기이고, 그곳에 자리 잡은 제석은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쉬웠다.²⁵⁾ 그리고 비단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부여·고구려·신라·가야 모두 시조신화는 하늘과 연결되는 천신 신화이다. 그러한 고대인의 천에 대한 관념이 불교의 제석과 통한다는 점에서 제석신앙은 불교의 어느 신앙보다도 빠르게 유입되고 쉽게 토착화되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제석신앙을 통해 왕권을 신성시하고, 호국의 의지를 새기고, 장수를 빌고, 그것이 무속과 쉽게 융화되는 특징 역시 모두 제석이 천신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석’은 불교 경전의 석제환인에 반드시 입각한 신앙 관념이며 그에 대한 이칭이기보다, 하늘님의 뜻인 천·천신·상제의 불교적 용어로 사용됨이 혼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 조 외에 이후 ‘제석’의 용례가 더 나타나는데 실제 ‘상제’와 ‘천제’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더하여 신라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제석’이 종종 등장하고 있어, 제석신앙이 단지 고려 시대에 성행했던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그에 대한 사례를 보겠다.

<라-1> 貞明 7년 辛巳(921년) 5월 15일에 帝釋이 절의 왼쪽 經樓에 내려와 10일 동안 머무니, ... 공사가 끝나자 天帝가 돌아가려고 하니 두 스님이 아뢰기를, ... 天帝가 말하기를, “나의 願力은 보현보살이 두

23) 제석사 창건 시기는 대부분 무왕 때로 보고 있지만, 최근 고고학 발굴 조사 결과 토기 편년에 의거하여 위덕왕 때인 6세기 후반에 창건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김정현, 2017, 「익산 제석사지 창건에 관한 연구」 『야외고고학』 28.

24) 길기태, 2010, 「제석사 창건의 정치적 배경과 금강경」 『역사와 담론』 56.

25) 안지원, 2011, 『개정판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240쪽.

룩 현묘한 교화를 퍼는 것이니, 그 보살을 그려 경건하게 공양하여라” 라고 하였다.²⁶⁾

<라-2> 古記에 이르기를, 前漢 宣帝 神爵 3년 壬戌(서기전 58년) 4월 8일에 天帝(의 아들)가 暹승골성<大遼 醫州의 경계에 있다>에 오룡거를 타고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하였다. 나라 이름은 북부여이고 스스로 解慕漱라 이름하였다.²⁷⁾

<라-3> [유화가 말하기를] 그때 한 남자가 스스로 天帝의 아들 解慕漱라 하며 저를 熊神山 아래 압록강 가 집 안으로 피어 사통하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나라 이름은 고구려이고 그로 인해 ‘高’를 써로 하였다<본래의 성은 ‘解’이다. 지금 스스로 天帝의 아들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 하여 스스로 고를 써로 한 것이다.²⁸⁾

<라-4> 왕이 표훈 대덕을 불러 말하기를, “짐이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원컨대 대덕께서 上帝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해주시오.” 라고 하였다. 표훈이 天帝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 아뢰기를²⁹⁾

<라-5> 의상 법사가 도선 율사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스님은 이미 天帝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일찍이 들으니 帝釋宮에는 부처님의 이 40개 가운데 어금니 하나가 있다고 하니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청해서 사람들에게 복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율사가 이후 天使와 함께 그 뜻을 上帝께 전했다니 상제는 7일 안에 의상에게 보내주었다.³⁰⁾

26)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興輪寺壁畫普賢, “貞明七年辛巳五月十五日, 帝釋降于寺之左經樓, 留旬日, … 工既畢, 天帝將還, 二僧白曰, … 帝曰, 我之願力, 不如彼普賢菩薩遍垂玄化, 畫此菩薩像, 虔設供養而不廢宜矣.”

27) 『三國遺事』卷1 紀異 第2 北扶餘, “古記云, 前漢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子)降于訖升骨城<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28) 『三國遺事』卷1 紀異 第2 高句麗,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渌邊室中私之, 而往不返. …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本姓解也. 今自言是天帝子承日光而生, 故自以高爲氏.>

29) 『三國遺事』卷2 紀異 第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王一日詔表訓大德曰, 朕無祜, 不獲其嗣, 願大德請於上帝而有之. 訓上告於天帝, 還來奏云

30)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前後所將舍利, “湘公從容謂宣曰, 師既被天帝所敬, 嘗聞帝釋宮有佛四十齒之一牙, 爲我等輩, 請下人間爲福如何. 律師後與天使傳其意於上帝, 帝限七日送與湘公.”

<라-6> 璃目이 항상 절 옆의 작은 못에 있으면서 몰래 불법의 교화를 도왔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밭의 채소가 마르고 탔다. 寶壤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자 온 경내가 흡족하였다. 天帝는 이목이 그 직분을 남용했다고 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이목이 조사(보양)에게 위급함을 고하니 조사가 마루 밑에 숨겨주었다. 조금 뒤 천제의 사신이 뜰에 이르러 이목을 내놓으라고 하여, 조사가 뜰 앞의 배나무를 가리키자 배나무에 벼락이 치고는 천제의 사신이 하늘로 올라갔다.³¹⁾

<라-7> [자장이] 당나라에 들어가 청량산을 찾았다. 그 산에서 曼殊大聖의 소상이 있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서로 전해 말하기를, “帝釋天이 장인을 데리고 와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였다.³²⁾

위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면 삼국유사에서 제석은 사실상 천제·상제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라-5>에 등장하는 ‘제석궁’ 역시 불교 경전에서 석제환인이 거주하는 도리천의 善見城이나 善法堂 아니라, 일반적으로 천제 또는 상제가 거하는 관념적인 천상의 공간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 환인에 대해 제석이라 한 찬자의 주 역시 그 제석을 반드시 불교 경전의 시각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제석 신앙이 수용되어 그것이 고유의 천신 신앙과 습합된 이래, 제석은 곧 천제·상제와 같은 의미의 하느님을 뜻하는 불교도의 표현이었다.

한편, 환인을 제석이라 한 삼국유사의 주를 민속적 고유의 신인 ‘환인’과 불교적 외래의 신인 ‘제석’의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 불교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쓰인 13세기의 언설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³³⁾ 어느 정도 일리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지만, ‘제석’이라는 말에 불교의 신앙·교리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를 통해 “고유의 토착신과 불교적 외래의 신의 결합”이라 한 것은 과도한 억측이라 생각한다.

이승휴의 『帝王韻紀』에서는 단군을 “釋帝之孫”이라 하였다.³⁴⁾ 일연과

31) 『三國遺事』卷4 義解 第5 寶壤梨木, “璃日常在寺側小潭, 陰隲法化, 忽一年亢旱, 田蔬焦槁, 壤勅璃日行雨, 一境告足. 天帝將誅不識, 璃目告急於師, 師藏於床下. 俄有天使到庭, 請出璃目, 師指庭前梨木, 乃震之而上天.”

32) 『三國遺事』卷4 義解 第5 慈藏定律, “西入唐, 謁清涼山, 山有曼殊大聖塑相. 彼國相傳云, 帝釋天將工來彫也.”

33) 袴田光康, 2010, 「『三國遺事』における「桓因」と「帝釋—日本における天神信仰の視点から—」 『연민학지』 14, 473~474쪽.

34) 『帝王韻紀』下卷 前朝鮮紀,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曰雄云云…>”

같은 승려가 아닌 이도 釋帝(帝釋과 같은 말)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13세기 고려의 문자 생활이다. 이승휴가 쓴 석제라는 표현이 반드시 불교의 석제환인을 말함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注에 인용한 本紀에서 환인을 ‘上帝桓因’이라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제라는 표현과 아들 환웅에게 인간세계의 통치권을 맡기는 정황 등을 통해서 보면, 단군신화의 환인은 종교 전통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至高神으로 여겨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따라서 환인은 천제·상제와 같은 의미의 하느님을 뜻하는 이두식 표기이고, 사회 전반에 불교적 색채 및 문자 생활이 강하게 배어 있는 고려 시대의 사람들이 그를 제석·석제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3. 환웅신화와 환웅의 역사성

3.1 다양한 환웅신화와 서사의 중요성

일제강점기 단군신화를 연구한 일본인들의 연구에서 환웅에 대한 언급은 환인과 단군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당시까지 한국사 연구의 기초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동국통감』에 단군 이전의 환인과 환웅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것과 환웅은 환인과 단군 사이에 있어 중요성이 낮게 취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하여 단군신화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환인과 단군에 덧붙여진 불교적 윤색을 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조선 건국 뒤 단군 위주로 다시 정리되기 이전의 단군신화는 환웅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환웅은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상의 인간과 동물 세계에 처음으로 내려와 ‘왕’이 되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농경을 전하며 국가를 건국하는 왕을 낳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환웅 역시 단군 못지않은 중요한 존재이며,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은 당연하다. 단군은 건국의 시조로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건국전승’이라 한다면,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세계의 선도자·마법사와 같은 존재가 되므로 그에 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화’이다.³⁶⁾ 더하여 문헌에 따른 신화의 내용적 차이 또한 환웅

35) 서영대, 2001, 「단군신화의 역사적 이해」 『한신인문학연구』 2, 47~48쪽.

36) 최광식, 2015,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고찰」 『한국사학보』 60.

때의 이야기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그에 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각 문헌에 실린 단군신화를 보겠다.

<마-1> 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제석을 이른다>의 서자 환웅은 자주 하늘 아래를 바라보며 인간 세상을 탐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만하다 하여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준 뒤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태백은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곳을 신시라 이르고 그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그는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관장하고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神雄에게 빌며 사람이 되기를 청하였다. 그때 신웅은 신령스런 썩 한 타래와 마늘 20쪽을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곰과 범은 그것을 먹고 금기한 지 21일이 되어 곰은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않아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매일 壇樹 아래에서 임신하기를 기도하니 환웅이 잠시 변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³⁷⁾

<마-2> 本紀에 이르기를,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으니 웅이라 한다. 환인이 그에게 이르기를 “삼위태백에 내려가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라” 하였다. 이에 웅이 천부인 3개를 받고 귀신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를 단웅천왕이라 한다. 손녀에게 약을 먹게 하여 사람이 되게 한 뒤 檀樹神과 혼인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니 이름이 단군이다.³⁸⁾

<마-3> 檀君古記에 이르기를,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이름이 웅

37) 『三國遺事』卷1 紀異 古朝鮮,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38) 『帝王韻紀』下卷 前朝鮮紀,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 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壇樹下, 是謂檀雄天王也云云. 令孫女飲藥, 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이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교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천부인 3개를 받아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갔다. 이가 곧 단웅천왕이다.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한 뒤 단수신과 결혼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니 이름이 단군이다.³⁹⁾

<마-4> 옛 기록에, 옛날 천신 환인이 있었는데, 서자 웅에게 명하여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그곳을 신시라고 하였다.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때 꿈 한 마리가 늘 사람 되기를 신에게 축원하였다. 신이 靈藥을 먹게 하였더니, 꿈이 그것을 먹고 여자로 변하였다. 신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단군이다.⁴⁰⁾

단군신화는 문헌에 따라 다양한 이본이 전하는데,⁴¹⁾ 비교적 앞선 시기의 문헌이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내용이 잘 갖추어진 것이 위 4개의 단군신화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언급하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줄거리의 큰 차이만 놓고 보자면 <마-1·4>는 꿈이 등장하는 환웅과 꿈에 관한 이야기인 반면, <마-2·3>에서는 환웅의 손녀와 단수신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그 밖에 조선후기 승려 秋鵬이 남긴 『妙香山志』에는 第代朝記라는 문헌을 인용한 또 한편의 단군신화가 전한다. 제대조기는 세조 때에 수거한 朝代記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편찬 주체 및 연대는 알 수 없다. 거기서는 환웅이 백호와 관계를 맺어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특히 『묘향산지』에 수록된 단군신화는 내용 및 문장에 불교적 윤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앞의 두 신화보다 원형에 더 가까울 가능성도 있다.⁴²⁾

이와 같은 여러 유형의 단군신화를 통해서 볼 때, 이야기의 중심은 환웅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양성과 여러 샤머니즘·토테미즘적 화소가 단군신화의 고유성 및 전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39) 『世宗實錄』卷154 地理志 平安道 平壤府,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4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 寧邊大都護府 古跡, “古記, 昔有天神桓因, 命庶子雄, 持天符三印, 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 主人間三百六十餘事, 時有一熊常祝于神, 願作人身. 神遺靈藥使食, 熊食之, 化爲女. 神因假化爲昏而生子, 是爲檀君.”

41) 단군신화의 이본 및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이정재, 2000, 「단군신화 이본연구Ⅱ -천상계와 지상계의 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

42) 허홍식, 1997, 「雪巖秋鵬의 妙香山志와 檀君記事」 『청계사학』, 13.

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환웅 부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고,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외에 여러 이본에 대한 조사 및 비교 검토 역시 등한시하였다. 그러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신화와의 연결성 이야기하거나, 단순한 불교적 용어 또는 고려의 시대적 배경에 집중하여 부정론을 이어갔다.

물론, 今西龍의 경우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마-1〉)을 중점으로 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단군신화(〈마-3〉)를 비교 검토한 바 있다. 그에 대해 결론적으로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는 원시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은 후대의 수식이 더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 주요 논거는 환웅의 ‘환’을 버리고 ‘단웅’이라 한 것, ‘熊女’를 ‘손녀’로 쓴 것 등은 刊誤 또는 찬자의 개작이라 한다. 그리고 ‘虎男·熊女’의 내용 대신 단웅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여인이 되게 하고 출처불명의 단수신과 혼인시켜 ‘단군’을 낳았다고 한 것은 모계의 증조부로부터 ‘檀’의 성을 붙인 맥락이니, 이는 곧 그것이 改作된 것임을 폭로하는 꼴이라 비판한다.⁴³⁾ 이와 같은 今西龍의 인식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단군신화를 또 다른 유형의 단군신화로 보지 않고 다시 가공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단수신의 존재가 상정된 만큼, 단군의 ‘단’이 모계 증조부 ‘단웅’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웅·단수신의 ‘단’이 어떠한 공통의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된 단군신화와 같은 내용의 단군 신화가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왕운기』에서 먼저 확인된다. 『제왕운기』는 1287년에 작성되어 『삼국유사』(1281) 시기적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단군신화를 수록하는데 『삼국유사』는 ‘고기’, 『제왕운기』는 ‘본기’를 인용하고 있어 이승휴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차용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今西龍이 「단군고」를 작성할 때는 아직 『제왕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증보문헌비고』와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 등에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간간히 언급되고 있었다. 今西龍은 이들 책을 통해 『제왕운기』의 존재와 그 책에 단군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제왕운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그 점을 스스로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히고 있다.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단군신화가 『제왕운기』의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생각 못 하고 후대

43) 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1, 京城: 靑邱學會 ; 1970, 『朝鮮古史の研究』, 京城: 國書刊行會, 20~21쪽.

의 개작 또는 간오로만 여겼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문헌에 대해 불신이 선입견이 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부른 추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3.2 환웅신화의 여러 화소와 환웅의 역사성

환웅 신화 부분에서는 ‘삼위태백’, ‘천부인’, ‘곰과 호랑이’, ‘단수신’ 등 여러 화소가 등장한다. 그 화소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환웅의 실존성 내지 역사성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완벽히 해결되었다 하기 어려울 만큼 논의가 분분하다. 일제강점기 일본학자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및 고증을 시도한 이 역시 今西龍이다. 비록 하나하나 자세히 고증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인 대략의 해석을 내놓은 선구적 업적이라 할만하다.

今西龍은 『삼국유사』 수록 단군신화에서 환웅의 하강과 신사에서 인간세계를 통치하는 부분은 도교적 윤색으로 꾸며진 내용이라 한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왔다는 내용부터, 풍백·우사·운사를 이끌고 인간사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인간계의 세상을 교화하였다 함은 실로 도교 사상 그대로라 한다. 특히 이 구절에 등장하는 ‘三危太伯’이라는 용어를 통해 도교적 색채를 강조한다. ‘三危太伯’의 ‘三’은 ‘參’과 같은 글자로 서방에 거하는 별자리 이름이고, ‘危’도 28宿의 하나인 危宿과 관련된 글자이며, ‘太伯’ 역시 별자리 이름으로 신령스러운 산에 그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 용어라 한다. 그리하여 “환인이 삼위태백을 내려보았다”라는 문구는 제석환인이 33천 위에서 參星·危星·太伯星 방향의 인간계를 보았다는 의미이거나, ‘삼위’는 삼성과 위성 두 별자리의 이름을 함께 적은 산 이름으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내놓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실체는 묘향산이고 도교적 語辭가 명확하다 한다.

그밖에 환웅이 환인에게 받은 ‘天符印’ 역시 도교적인 것이며, 환웅이 거느린 풍백·우사·운사는 도교에 보이는 司職神이라 한다. 그리하여 환웅이 천상에서 하강하여 지상의 하계에 천상과 같은 조직의 왕정을 만들었다는 맥락의 도교적 내용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주를 추가하여 최치원의 <鸞郎碑>에 언급된 神敎와 신라의 화랑도 그리고 신라에서 조선 시대까지 승려를 ‘道人’이라 했던 것을 들어, 이때의 도교는 고유의 신교와 불교가 융합된 고려시대의 것이며 그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쓰여진 것으로

로 설명한다.⁴⁴⁾

환인은 고려시대의 제석신앙의 소산이고, 환웅과 관련된 내용은 도교적 언사이며, 묘향산의 향목만이 단군신화와 관련된 실물이라는 논조로 그의 견해를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그러한 今西龍의 시각은 이후 일본 학계의 통설이라 할 수 있다.⁴⁵⁾

今西龍이 환웅신화를 도교적 운색으로 몰아가는 첫 번째 논거는 ‘삼위태백’에 대한 해석이다. 태백은 이어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환웅이 내려왔다” 하거나, 고구려 주몽신화에서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해모수가 유화를 만났다고 하는 것 등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산 이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의 ‘삼위’인데, 이는 굳이 ‘三’을 ‘參’자로 바꾸고 별자리를 운운하기에 앞서, 일본의 단군신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제왕운기』의 저자 이승휴는 단군이 마지막에 산으로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하는 아사달산에 대해 주를 달아 당시의 구월산으로 궁홀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삼위’라 한다고도 하였다.⁴⁶⁾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황해도 구월산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 산을 ‘삼위’라 한다고 하였으며, 단군과 관련된 역사를 함께 소개하였다.⁴⁷⁾

『제왕운기』의 이 구절을 확인한 최남선은 삼위는 산 이름임을 확신하고, 단군이 마지막에 들어가 산신이 되는 ‘아사달(구월산)’의 다른 이름이라 하므로, ‘삼위태백’은 단군의 시강점이자 종귀지를 열거한 것이라 하였다.⁴⁸⁾ 그 뒤 리지린은 ‘삼위’라는 산 이름이 일찍이 중국 문헌 『상서』 순전과 우공편에 등장하고 중국 서쪽 끝에 있는 산임을 고증한다. 하지만 단군신화의 삼위는 그 산이 될 수 없다 하고, 아사달을 하얼빈(할빈)의 完達山이라 하는 신채호의 견해를 따라 삼위 역시 그 산으로 이해한다.⁴⁹⁾ 한편 최근에는 환웅을 내려보내면서 그 아들 단군의 임종지까지 언급했다고 하는

44) 今西龍, 「檀君考」 『靑邱說叢』 1, 京城: 靑邱學會, 1929 ; 『朝鮮古史の研究』, 京城: 國書刊行會, 1970, 30~32쪽.

45)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 上, 東京: 塙書房, 303~305쪽.

46) 『帝王韻紀』 下卷 前朝鮮紀, “入阿斯達山爲神<今九月山也. 一名弓忽, 又名三危, 祠堂猶在, 享國一千三十八>”

4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 文化縣, “九月山在縣西十里, 卽阿斯達山, 一名弓忽, 一名甌山, 一名三危. 世傳檀君初都平壤, 後又移白嶽, 卽此山也. 至周武王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唐藏京, 後還隱此山, 化爲神.”

48) 崔南善, 1954, 「檀君古記箋釋」; 전성근·허용호 옮김, 2013, 『최남선 한국학 총서 7 단군론』, 경인문화사.

49) 리지린, 1963, 『고조선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1989, 서울: 도서출판 열사람), 119~122쪽.

것은 수궁할 수 없다 하여, ‘삼위태백’은 하나의 산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그에 따라 단군이 최후로 돌아가 산신이 되는 곳 역시 그가 태어난 태백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순리라 한다. 더하여 ‘삼위’라는 이름 또한 ‘궁홀’이나 ‘아사달’처럼 토박이말을 한자로 쓴 것으로 파악한다.⁵⁰⁾ 이와 같은 『삼국유사』 외의 단군신화 이본과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삼위태백’에 관한 今西龍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천부인 3개’에 대해 보겠다. 단군신화 안에서 내용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천부인은 환웅이 아버지인 천제로부터 공식적인 승인 또는 명령의 의미로 받은 증표이자 하늘로부터의 정통성과 신통력을 확보하는 인장과 같은 신표로 봄이 일반적이다.⁵¹⁾ 금서룡은 환웅신화 전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천부인’이라 표기 또한 도교적 언사로 취급하였지만, 신화의 내용 안에서 보면 ‘천부인’은 적합한 표현으로 문제 될만한 소지는 없다. 문제는 그 신표라 할 수 있는 천부인 3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각각 무엇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최남선은 동북아시아 건국신화의 다른 사례를 들어 천부인 3개를 종교적 신표로 해석하면서 鏡·劍·冠으로 보았다.⁵²⁾ 또는 단군신화를 일종의 무속신화로 보는 시각에서는 천부인 3개를 신으로부터 받은 靈力의 상징인 칼·거울·요령 등의 세 가지 巫具로 보기도 한다.⁵³⁾

한편, 이와 같은 환웅신화에 등장하는 화소를 고증하는 작업은 먼저 신화의 주인공 환웅의 실체성 및 역사성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환웅의 실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의 부수적 존재로 등장하는 화소를 고증하는 일은 무의미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에서는 환웅은 물론이고 단군마저 실존의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었다. 이후 한국인들의 연구에서는 단군은 고조선 시대 실제의 수장을 말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갔지만, 환웅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 또는 한 문화집단을 상징하는 화소로 여겨지는 경향이 우세하다.

그러나 환웅이 신사에서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문제를 주관하거나, 바람·비·구름의 신을 거느렸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세속적 권위뿐만 아니라 초월적 영역과도 통할 수 있는 종교적 권능을 동시에 갖춘 권력자로 보는

50) 辛鍾遠, 2004, 『삼국유사 새로 읽기(1) -기이편(紀異篇)-』, 일지사, 213쪽.

51) 이선아, 2020, 『단군신화와 계세르칸』, 민속원, 171쪽.

52) 崔南善, 1954, 「檀君古記箋釋」; 전성곤·허용호 옮김, 2013, 『최남선 한국학 총서 7 단군론』, 경인문화사.

53) 김태곤, 1988, 『한국의 신화』, 시인사, 34쪽.

견해도 있다.⁵⁴⁾ 또는 인간 세계의 지배자로 왕이 출현하고 더하여 왕이 자연 세계도 주관할 수 있는 우월한 존재로 부상하는 고조선 왕권의 탄생을 반영하는 존재로 환웅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한다.⁵⁵⁾

사실, 환웅을 신령·산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취급한다면 천부인과 같은 실물을 지니고 있거나, 사람들을 통치·교화했다는 내용은 성립하기 어렵다. 단군이 실존의 군장이었는데 산신이 되는 것으로 신격화되었듯이, 환웅 역시 신화의 구조 및 내용상 충분히 인격체로 그 실존성을 부여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청동기·초기철기 시대의 수장은 건국 설화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고고학 물질문화를 통해서도 巫 또는 종교 직능자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함께 지니고 있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에 나오는 주몽은 천제의 후예이며, 비류국을 항복시키기 위해 흰사슴을 잡아 저주의 주문을 외워 비류국이 물에 잠기게 하고 다시 채찍으로 물에 금을 그어 물이 줄어들게 하는 주술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탈해와 수로는 독수리와 매로 변하며 서로 술법을 겨루기도 한다. 이는 시조를 신성화 하거나 신화화 한 산물인 동시에 그들의 종교 직능자로서의 역할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⁶⁾

환웅이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렸다 하거나, 곰과 호랑이와 소통이 되었다 하는 등의 이야기는 주몽·탈해·수로의 사례와 성격상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삼위태백’이라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관장하며 360가지 일을 주관하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화했다는 것은 분명 인격체로서의 정치적 수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웅은 고조선 안에서 제정일치 사회의 왕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존재라 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단군신화는 환인·환웅·단군 3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환인·환웅·단군 모두 신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나름의 역사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간 단군만을 중시해온 측면이 크다. 그렇게 된 결정적 계기는 조선 건국 초 편찬된 『삼국사절요』·『동국통감』에서 환인·환웅에 대한 이

54) 서영대, 2001, 「단군신화의 역사적 이해」 『한신인문학연구』 2, 50쪽.

55) 이정빈, 2016, 「단군신화의 비대칭적 세계관과 고조선의 왕권」 『인문학연구』 31.

56) 이현혜, 2003, 「한국 초기철기시대의 정치체 수장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80.

야기가 모두 삭제되고 단군만의 신화로 재정비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더하여 일제강점기 단군신화를 연구한 일본인들의 연구가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에 가작되었다는 논조로 다루어진 것 또한 후대에 미친 영향이 컸다.

환인의 명칭은 불교의 석제환인을 줄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더하여 환인을 제석이라고 한 일연의 주 역시 환인이 곧 불교의 제석을 일컫는다는 의미의 1차원적 해석은 곤란하다. 환인은 하늘·하느님의 이두식 표기이고, 일연이 말한 제석은 하느님·至高神을 뜻하는 고려시대 불교도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겠다.

환웅에 관한 내용은 단군신화에서 단군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더하여 단군신화는 여러 유형의 이야기로 이본이 전하는데, 그 다양성은 환웅에 관한 내용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단군신화 연구는 그 이본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는 그것을 등한시하였고, 그것이 단군신화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보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단군신화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때, 환웅은 고조선의 역사 안에서 원시 제정일치 사회의 수장을 직접적으로 대상화 한 존재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三國遺事』

『帝王韻紀』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清虛集』

『大智度論』(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佛說立世阿毘曇論』

『雜阿含經』

가산불교문화연구원, 『伽山佛教大辭林』 卷13,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길기태, 2010, 「제석사 창건의 정치적 배경과 금강경」 『역사와 담론』 56

김성순, 2018, 제석신앙의 시공간적 발현 -삼장육재일의 재법과 선법당- 불교문예연구
10

김정현, 2017, 「익산 제석사지 창건에 관한 연구」 『야외고고학』 28

김태곤, 1988, 『한국의 신화』, 시인사

리지린, 1963, 『고조선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1989, 서울: 도서출판 열사람)

서영대, 2001, 「단군신화의 역사적 이해」 『한신인문학연구』 2

신종원 외, 2009,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教史研究』, 민족사

辛鍾遠, 2004, 『삼국유사 새로 읽기(1) -기이편(紀異篇)-』, 일지사

안지원, 2011,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윤성찬, 2016, 「단군신화의 제석과 불교의 제석천의 연관성 연구」 『고조선단군학』 34

이근우, 2022,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이선아, 2020, 『단군신화와 게세르칸』, 민속원

이정빈, 2016, 「단군신화의 비대칭적 세계관과 고조선의 왕권」 『인문학연구』 31.

이정재, 2000, 「단군신화 이본연구Ⅱ -천상계와 지상계의 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연구』 3.

이현혜, 2003, 「한국 초기철기시대의 정치체 수장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80.

전성곤·허용호·옴김, 2013, 『최남선 한국학 총서 7 단군론』, 경인문화사.

최광식, 2015, 「환웅천왕과 단군왕검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고찰」 『한국사학보』 60.

허흥식, 1997, 「雪巖秋鵬의 妙香山志와 檀君記事」 『청계사학』, 13.

- 高橋亨, 「檀君傳説に就きて」 『同源』, 東京: 同源社, 1920
- 高橋亨, 「三國遺事の注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 奈良: 朝鮮學會, 1955
- 袴田光康, 2010, 「『三國遺事』における「桓因」と「帝釋—日本における天神信仰の視点から—」 『연민학지』 14
-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說叢』 1, 京城: 青邱學會 ;
- 今西龍, 1970, 『朝鮮古史の研究』, 京城: 國書刊行會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東京: 學習院大學.
- 白鳥庫吉, 1970, 『白鳥庫吉全集』 3, 東京: 岩波書店.
-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 上, 東京: 塙書房
- 小田省吾, 1924, 「檀君傳説に就て」 『朝鮮史講座』, 京城: 朝鮮史學會

2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단군·기자 연구와 문제점

조원진(세종대)

목 차

1. 서론
2. 단군 연구 내용과 분석
3. 기자 연구 내용과 분석
4. 이마니시 류의 고조선 연구와 문제점
5. 결론

1. 서론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일본인 최초로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로 식민주의 역사학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된다. 그는 조선 강점 이후 총복부에서 전개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1922년 일본에서 최초로 조선사를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였다.¹⁾ 이마니시의 연구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다양한 시대에 걸쳤는데 특히 신라사와 백제사는 단행본으로 따로 발간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것은 그가 한반도 남부의 韓種族만을 오늘날 조선민족과 연결된다고 보았던 사실과도 관련된다.

하지만 이마니시는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도 적지 않게 발표하였다. 특히 이마니시는 일본학자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발표하였다.

1)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105쪽.

또한 그의 기자 연구 역시 일본 학자 중에서 기자 문제를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단군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기자 동태를 부정하며 고조선 시기의 역사를 공백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시라토리의 연구²⁾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이 있었고, 남에는 진번, 진국, 임둔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마니시 류의 연구에 대해서는 근대시기 최남선의 비판이 있었으며³⁾ 최근에는 그의 단군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졌다.⁴⁾ 그럼에도 이마니시의 고조선 관련 연구 중 주로 단군에 대한 연구만 검토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마니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와 ‘조선사’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조선반도사』의 1~3편과 『조선사』의 1-2편(신라통일 이전, 통일이후의 신라) 집필을 맡았다. 여기에서 고조선사는 서술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마니시의 고조선사 인식은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이마니시는 기자조선에 대해서도 자세한 연구를 발표했고 그의 단군·기자 연구는 모두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의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마니시의 한국고대사 연구 중에서도 고조선과 관련된 그의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마니시는 1910년대 「檀君의 傳說에 대하여(檀君の傳說につきて)」와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를 통해 간략하지만 단군과 낙랑 왕씨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마니시는 1920년대에 단군과 기자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발표한다. 1922년에는 「箕子朝鮮傳說考」를 발표하여 기자조선은 중국사서가 날조한 전설이라고 보고 위략의 관련 기록은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

2) 시라토리의 단군 연구에 대한 비판은 최근 다음의 연구가 있다.

이근우, 2022,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 윤승준,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신화 연구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40 ; 진진국, 2022, 「단군신화의 불교적 윤색과 ‘단군’ 명칭에 관한 학술사적 검토-白鳥庫吉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0 ; 조원진,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3) 최남선은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는 단군을 부정하여 기자를 조선이 개국자라 하더니 시라토리는 기자마저 부정하여 위만을 조선의 발견자라고 한다며 지적하고(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2003, 130~131쪽) 그의 단군부정론을 비판하였다(최남선, 1973, 『六堂 崔南善 全集』 2(韓國史2 檀君·古朝鮮 其他), 玄岩社 ; 최남선(전성곤·허용호 역),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4) 이근우, 2020, 「이마니시 류의 단군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74.

장한다. 이마니시의 기자 연구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는 중국학자에 의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⁵⁾ 이어서 1929년 방대한 분량의 논문인 「檀君考」를 통해 단군의 역사성을 부인한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眞番郡考」,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 「冽水考」 등을 통해 고조선 영역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었다. 이외에도 이마니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와 『조선사』 편찬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마니시의 고조선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되었다.

- 今西龍, 1910, 「檀君の傳説につきて」 『歴史地理 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 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 『人類學雜誌』 25-8.
- 今西龍, 1912,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1.
-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
- 今西龍, 1921,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 『藝文』 12-3.
-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説考」 『支那學』 2卷 10・11號.
-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說叢』 卷1.
- 今西龍, 1929, 「冽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今西龍, 1934, 「上古—原始時代及び開國傳説」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이마니시류의 고조선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그의 연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단군 연구 내용과 분석

2.1 이마니시의 단군 연구 내용

이마니시는 「檀君의 傳説에 대하여(檀君の傳説につきて)」⁶⁾를 통해 단군을 주제로 첫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은 그가 한국고대사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연구에서 단군전설이 불교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하고 스사노오와 단군이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동일한 신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

5) 李健才, 2001, 「評<箕子朝鮮傳説考>」 『東北史地考略』 第三集, 吉林文史出版社, 1~16쪽.

6) 今西龍, 1910, 「檀君の傳説につきて」 『歴史地理 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223~230쪽.

이라고 보았다. 그는 단군왕검에서 ‘단군’은 존칭이며 ‘왕검’은 이름이라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왕검은 위씨조선의 도읍이름인 ‘왕협’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는 고구려시대 평양의 옛 지명이 왕협으로 전해지고 고려시대 왕검선인이 선인왕검으로 전해졌다고 보았다. 단군의 ‘단’은 우두전단에서 유래했으며 단군과 스사노오가 관련있다고 보는 것은 큰 오류라고 보았다. 그리고 단군이 동부여왕 부루의 아버지로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와 연관있다고 본 시라토리의 견해와 유사한 논지를 전개했다. 그러면서도 『三國遺事』가 인용한 『魏書』를 북제 위수의 『魏書』라고 보고 단군 전승이 고구려시대에 나왔다고 본 시라토리의 견해와는 달리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이 고려시대에 나왔다고 보았다.

그가 1910년 강점과 함께 『歷史地理 朝鮮號』에 단군에 대한 짧은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당시 유행하던 “일한상대동역설”, “일한동민족설”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이마니시는 단군을 부정하며 평양 지역의 일개 神人이었던 ‘선인왕검’에 고려 중반 ‘단군’이라는 존호가 붙여져 창시의 신인으로 여겨졌다고 주장한 것이다.⁷⁾

이후 이마니시는 그의 단군 연구를 확장하여 1929년 장문의 「檀君考」⁸⁾를 발표하는데 그의 단군 연구는 「檀君考」에 집약되어 있다. 「檀君考」서언에 의하면 초고는 1920년에 작성하였으며 이를 수정, 증보하였다고 한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魏書』에 단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는 『삼국유사』에서 일연의 오류를 지적하며 인용한 사서 중에서 원 사서에는 없는 경우를 근거로 들었다. 예를 들어 이부조에서 『漢書』를 인용했지만 그 부분은 『漢書』에 없으며 칠십이국조에서 『後漢書』를 인용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 『通典』에서 인용했는데 『通典』에는 해당 기사가 없는 경우가 있는 등 『三國遺事』에는 중국 역사서에 인용한 기사중 실제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魏書』는 북송 이후 망실되어 29권만 불완전하게 남아 이를 보완하고 빠진 곳을 채워넣었지만 제100권 고구려, 백제 등 열전, 제114 석로지 등은 완전한데 여기에는 단군 기사가 없다. 이마니시는 설사 이 부분만 없어졌다

7)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106~114쪽.

8) 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卷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130쪽 ; 김희선 번역, 2009, 「단군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49~119쪽).

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관해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 중에서 그 흔적이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魏書』에 단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왕검선인은 옛날부터 옛 평양을 수호하는 神人으로 그 지역에 전해졌다고 본다.

주몽의 아버지로 전하기도 하고 부루의 아버지라고도 전해는 것으로 볼 때 단군왕검 선인의 본체는 해모수라고 주장한다. 즉 왕검은 신선의 호칭이고 해모수는 왕검선인의 본명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三國遺事』 왕력편 고구려 조에 기록된, “朱蒙一作鄒蒙檀君之子”라는 기록과 기이편 고구려조의 『檀君記』를 인용한 註는 일연이 쓴 것이 아니라 뒷사람이 보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며 이것은 단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았다. 『단군기』에서는 단군과 西河 河伯女 사이에서 夫妻가 태어났다고 했으며, 『삼국사기』에서는 解慕漱와 하백녀 柳花와의 사이에서 朱蒙이 태어났다고 했다. 이는 부루와 주몽이 異父同母의 형제가 되는 것인데 부루의 어머니인 서하 하백녀와,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녀 유화를 다른 사람으로, 해모수와 단군을 동일인으로 간주해야만 비로소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주는 해모수와 단군을 동일인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한다.

셋째 단군전설은 고구려 옛 땅을 그 지역으로 삼고, 통구스족인 부여종(고구려 포함)과 관련되며, 현대 한민족의 조상인 한족(韓族)과는 관련이 없다.

단군전설은 세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단군은 제석천 환인의 아들 환웅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신인(神人)으로서, 그 자손에게 왕통을 잇게 하지 않았다.(『삼국유사』 고조선조) ② 단군은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 주몽의 아버지이다.(『삼국유사』 사 왕력편) ③ 단군은 환인의 아들 단웅의 손녀(사실은 응녀)와 단수신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이다. 단군의 태자인 부루는 동부여의 왕이 된다.(『세종실록』 지리지 인용 『단군고기』) 이것은 시조 神人이 神獸交媾하여 자식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 북방대륙 민족과 공통된다. 人獸交媾는 일본민족의 경우 국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천신과 지신의 격노를 초래하여 국토에 재해를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민족의 神人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신령한 땅(淨地)에서 나오는 등 일본과 흡사하다.

넷째 단군전설은 일연의 시대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꾸며낸 것이라 주장

한다.

이마니시는 일연이 『三國遺事』에 단군을 수록한 것은 몽골 침입 40년의 국난을 당했던 시대와 관련된다고 한다. 일연이 지어낸 것으로 보기에 불교 색채가 너무 적다고 보았다. 왕검선인의 본래 전설은 해모수전설이 민간에 전해진 것으로 고려시대에 승려, 무당이 미화하여 제석환인의 神孫으로 만들고 단군이라는 神號를 부여하여 단군왕검으로 만들고, 조선 전체를 개창한 신인인 것처럼 기원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전설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구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고 언급한다.

다섯째 단군전설과 스사노오 전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마니시는 다만 일본에서는 스사노오가 후세의 무속인 무리에 의해 해열의 묘약인 전단(旃丹)을 생산한다는 인도의 牛首山 천왕이 속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하여 역병을 막는 신으로 제사되어 牛首의 조선말 훈독이 우연히 ‘소머리(曾茂梨)’가 되기 때문에 牛首天王的 칭호는 조선의 소머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면서 단군과 동일한 神人이라는 설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2.2 단군 연구의 문제점 분석

이마니시 류는 그때까지 어떤 일본학자보다도 당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진행했지만 적지 않은 오류와 문제점이 발견된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魏書』에 단군전승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이마니시는 단군전설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로 『魏書』 문제를 꼽고 있다. 그는 『三國遺事』에서 인용된 자료중에서 실제 중국문헌에 없는 자료를 제시하고 『魏書』는 북송 이후 불완전하게 남았지만 제 100권 고구려, 백제 등의 열전은 완전한데 여기에 단군 전승이 없으며 설사 단군 전승이 기록된 다른 부분이 없어졌어도 다른 중국 역사서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가 언급한 것처럼 『三國遺事』에 인용된 문헌 중 확인이 안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된다. 그러나 반대로 『三國遺事』가 인용한 사례중에는 확인되는 문헌도 많기 때문에 일부의 사례로 『三國遺事』가 존재하지도 않은 기록을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마니시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魏書』가 위수가 편찬한 『魏書』라는 전제아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남선이 지적한 것처럼 『魏書』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은 위수의 『魏

書』 외에 많은 문헌이 있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삼국시대의 曹魏系 『魏書』와 남북조시대 北魏系 『魏書』 중에 일연이 인용한 『魏書』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북송대 교감본이 아니라 그 이전 위수가 편찬한대로의 古本 『魏書』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견해⁹⁾도 있다. 또한 3세기 이후에는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기자조선설이 중국정사에 확고히 정착되어 갔기 때문에 조선의 독자적인 시조 기록이 『魏書』에 한차례 실렸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마니시는 단군의 실체에 대해 왕검은 신선의 호칭이고 지명인 ‘왕험’에서 따온 것이며, 해모수는 왕검선인의 본명이라고 주장한다. 즉 왕검선인의 본래 전설은 해모수전설이 민간에 전해진 것으로서 비천한 것을 고려시대 승려, 무당, 박수의 무리들이 미화하고 치장하여 그 시대에 번성하고 승배의 대상이 되었고 제석환인의 신손(神孫)으로 만들고 그 성지를 청천강 상류에 있는 태백산 즉 묘향산에 두었다한다.

그러나 ‘왕검’이 평양의 옛지명인 ‘왕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거나 해모수와 동일인이라 본 것은 큰 오류가 있는 것이다. 먼저 왕험과 왕검 문제를 살펴본다면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王儉 혹은 儉은 단군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王儉’은 중국의 왕호가 들어온 이후의 명칭으로 이해되는데 점에서 고조선 건국자의 이름은 ‘왕검’보다는 ‘검’이 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왕검’을 고조선 통치자의 칭호가 기존의 ‘검’에서 이후 한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자어와 우리 고유어를 병기한 용어라고 파악한 연구가 있다.¹⁰⁾ ‘검’은 고조선 건국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자 고조선 통치자의 칭호로도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¹¹⁾

『史記』 朝鮮列傳은 만왕의 도읍지를 ‘王險’으로 기록하였는데 중국문헌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고조선의 도읍명칭이다. 『三國史記』는 “평양은 본래 仙人 王儉의宅이다. 혹은 왕의 도읍을 王險이라 한다.”¹²⁾고 하였다. 이를 통해 평양이 단군왕검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사실과 평양과 王險의 관련

9) 박대재, 「『三國遺事』 古朝鮮條 인용 『魏書』 論」 『한국사연구』 112, 2001, 21~ 29쪽.

10) 서영수, 2006,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36쪽.

11)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몽골에서 원래 칭기스 칸의 후계자인 우구테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 ‘카안’이라는 칭호가 우구테이 사후에 여러 명의 ‘칸’을 거느리는 군주를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바뀌었다(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121~123쪽).

12)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第5 東川王 21年條, “平壤者 牽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

성도 알 수 있다. 『三國遺事』 위만조선조는 『漢書』 朝鮮傳을 거의 그대로 전제하면서도 ‘王險’을 ‘王儉’으로 고쳐 기록하였다.¹³⁾

이것은 중국문헌에는 ‘王險’이라 했지만 우리문헌은 ‘王儉’으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는 『三國遺事』가 고조선의 왕성으로 전해진 왕협성을 왕검성으로 파악하여 고조선 왕검의 성이란 뜻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王險은 『漢書』 地理志 遼東郡條의 險瀆의 註는 강에 의거하여 지세가 험준하다는 뜻으로 혼독하여 ‘險’자를 붙였는데¹⁴⁾ 이러한 방법은 중국식 借字表記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지명을 표기할 경우 ‘險’이라 표기하는 반면에,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田丘儉 張儉과 같이 ‘儉’이라 표기한 것이다.¹⁵⁾ 따라서 평양의 옛 지명인 왕협에서 왕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이마니시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이마니시는 단군을 해모수와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군의 아들 부루와 뒷날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를 동일 인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단군의 아들 부루는 하나라 우임금의 도산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인물로 해부루와는 시대가 다르다. 단군의 아들이 동부여 해부루라는 것은 단군전승이 고조선 멸망이후 전승 과정에서 부여, 고구려 신화와 융합되면서 발생한 인식으로 이해된다. 또한 단군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應製詩注』 등에는 단군이 非西岬의 ‘河伯之女’와 혼인하여 夫妻를 낳았다고 기록했다.¹⁶⁾ 하백녀는 고구려 시조의 어머니로도 기록되는 점에서 특정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의 여성 신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마지막으로 이마니시의 단군 연구는 단군 전승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는 전제아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마니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교화시켰다는 것은 실로 도교사상과 똑같다. (...) ‘下視三危太伯’는 제석 환인이 삼십삼천의 위에 앉아서 參의 별자리, 위(危)의 별자리, 태백의 별자리 쪽을 내려다 보면서(下視) 아득하면 인간계를 바라보았다는 뜻이거나, 또는 두 별자리의 이름을 합친 三危라는 산이 있으니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았다는 뜻일지 모른다. 어느

13) 『三國遺事』 卷1 紀異1 魏滿朝鮮條.

14) 『漢書』 卷28 地理志 8下 遼東郡條 “險瀆(依水險 故曰險瀆)”

15) 선석열, 2021, 「20세기 전후 일인 관학자들의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과 그 비판」.

16) 『應製詩注』 始古開關東夷主, “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妻”

17) 이지영, 2006,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13, 26쪽.

쪽이든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교적인 언사임에는 분명하다. (...)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고조선의 註에서 檀君朝鮮이라고 쓰지 않고 王儉朝鮮라고 쓴 것, 그리고 檀君王儉의 네 글자로 하나의 神人을 칭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단군은 존칭이고 왕검은 그의 본명이 된다. 신인에게 君號를 붙이는 것은 도교를 모방한 것이다.”¹⁸⁾

이처럼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의 구조와 삼위 태백, 풍백, 우사 등의 용어가 도교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대단히 작위적인 것이다. 특히 삼위와 태백은 별자리 이름이든 산의 이름이든, 혹은 두 개의 산으로 보든 하나의 산으로 보든 상관없이 도교적인 내용이라 단언할 수 없다. 특히 태백산은 중국 문헌에 보이지 않고 삼국유사에만 보이고 있다. 결국 이마니시가 삼위와 태백을 도교적인 용어로 단정한 것은 단군을 평양지역의 산신 즉 왕검선인으로 이해하려는 의도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¹⁹⁾ 또한 삼위는 궁홀이나 아사달처럼 토박이말을 한자로 쓴 것으로 보기도 하며,²⁰⁾ 풍백·우사·운사는 원시조선의 산물로 구전되어 오다가 한문으로 기록될 때 도교에서 쓰는 말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에서 불교적 요소는 적으며 구조를 보면 字句 상에 도교적 요소는 많다고 했으나 그가 언급한 도교적 요소는 단군 전승의 원형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편 이마니시의 단군 연구는 『三國遺事』 고조선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世宗實錄地理志』도 인용하지만 후자는 전자를 베낀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치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는 『三國遺事』와 동시대의 저서인 『帝王韻紀』를 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 할 수 있다.

3. 기자 연구 내용과 분석

3.1 이마니시의 기자 연구 내용과 분석

이마니시 류가 장문의 기자조선 논문을 작성한 것은 세키노 조사단에 참

18)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30~32쪽.

19) 이근우, 2020, 「이마니시 류의 단군 연구」 『한일관계사연구』74, 10~11쪽.

20) 신종원, 2004,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21) 김정학, 1954, 「단군신화와 토오테미즘」, 『역사학보』 7.

가하여 대동강 남안에서 낙랑군 유적을 조사한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마니시는 강점이전 동경제대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당시부터 한국을 답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동경제국대학의 주관으로 혼자서 경주지역을 답사했으며, 1907년에는 金海貝塚를 발견했으며, 1909년에는 동경제대 교수로 동양사를 전공하던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의 조수로 평양 주변의 분묘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대동강 유역의 고분군에 대해서 일본학계는 초반에는 고구려 고분설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낙랑 고분설로 전환하는데 이마니시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²²⁾ 그는 1910년에 발표한 「조선 평양군 대동강 남쪽의 고분」²³⁾에서는 고구려고분설을 주장했으나 1912년 「대동강 남쪽의 고분과 낙랑 왕씨와의 관계」²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기존의 통설을 바꾸게 된다. 이마니시는 이를 통해 자신이 조수로 발굴에 참여한 대동강 남쪽 전곽고분이 樂浪王氏와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마니시는 이 논문에서 고분의 주인공과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방의 역사적 변천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평양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평양은 옛날부터 반도 북부의 중요한 지역으로 지나 민족이 건설한 고조선의 수도 왕험성의址이다. (2) 대동강은 『漢書』地理志의 洌水이며 왕험성이 평양인 것은 확실하다. (3) 지나 민족의 독립 小王國인 위씨조선이 한제국에 멸망하고 그 고지에 현도, 낙랑, 진번, 임둔의 4군을 두어 모두 한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4) 낙랑은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영유하고 그 군치는 조선현을 주현으로 하여 군치는 王險古城址였다. (5) 이후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하여 위나라 초기에 낙랑, 대방의 위세가 점차 회복되었으나 낙랑의 중심은 여전히 평양에 있었다. 대방의 치소는 지금의 漢水 하류에 있었다. 그런데 韓民族이 봉기하여 2개 군을 멸망시켰다. 이때 고구려는 남진하여 평양으로 진입하고 백제도 남방에서 일어났다. 이에 위나라는 관구검과 왕기를 장군으로 삼아 고구려를 크게 절벌하여, 위나라 세력은 낙랑, 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약간 회복하였으나 일시적이

22)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257~258쪽.

이 시기의 일본의 낙랑 고분 발굴과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정인성, 2006, 「관야정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湖南考古學報』 24.

23) 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 『人類學雜誌』 25-8.

24) 今西龍, 1912,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77~290쪽).

었다. (6) 장통이 313년 천여 家를 거느리고 모용외에게 귀의하였는데 이는 대동강유역이 확실히 고구려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에 대동강 유역을 확실히 영유하고 백여년이 지나 장수왕 15년에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그 순서는 고조선(漢民族)-낙랑의 漢人-고구려-신라-고려 혹은 조선인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이마니시는 고조선을 漢民族의 국가로 보면서 기씨조선도 배제하고 위씨조선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토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낙랑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자는 왕씨뿐이기 때문에 왕씨는 낙랑의 큰 호족으로 보았다. 또한 발견된 유물중에 覆輪金具에 새겨진 “王□”은 고구려 왕씨가 아닌 낙랑 왕씨로 이 고분은 낙랑 고분이라 결론을 지었다.

이를 통해 이마니시는 대동강 남쪽의 고분의 피장자와 낙랑 왕씨 집단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뒷날 그가 기자 계보가 낙랑 한씨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때 확인한 낙랑 호족의 존재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마니시는 이후에 일제가 1915년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시작하며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적 조사에 착수하여 1차년도 고적조사로 평양 등 북부 지방 조사에 나서자 여기에도 참여했다.²⁵⁾

이마니시는 「大同江南의 古墳과 樂浪王氏와의 關係」를 발표한지 10년만인 1922년 장문의 「箕子朝鮮傳說考」²⁶⁾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단군조선에 이어 기자조선도 부인하게 된다. 그는 『史記』, 『漢書』, 『魏略』, 『三國志』에서의 기자조선 관련 기록은 중국에서 날조한 전설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조선은 중국 사서가 날조한 전설이며 조선에는 이런 전설이 없었다. 조선의 옛 전승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에 대한 것이 처음이며 그 이전에 전해오는 것은 오직 중국 사적에 의거하여 알았는데 고조선에 대해서도 중국 사서를 통해 존재를 알았다.

둘째 기자조선과 관련하여 『史記』, 『漢書』의 기록은 간략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기자조선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史記』, 『漢書』의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기록은 단지 조각조각

25) 서영희, 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92-93쪽.

26)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2卷 10·11號(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31-174쪽).

부서진 전설 기재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마니시 류는 기자 전설은 사마천도 송미자세가에는 기록했지만 조선열전에는 기록하지 않았고 『漢書』도 지리지에만 기록하고 조선전에는 쓰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셋째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된 전설이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史記集解』의 풀 두예가 말한 梁나라 몽현에 기자 무덤이 있다는 기록에서 실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魏略』은 상세하나 정확하지 못하다. 그 근거로 『史記』에서 夷服의 기재는 정확하지만 『魏略』에서 위만이 망명할 때 胡의 복장을 입었다고 한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마니시는 3세기 중엽 위나라 어환의 『魏略』에 기자 전설을 조금 자세히 쓰고 기자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면서 『三國志』 및 배송지 주의 기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는 『魏略』에서 기자조선에 대한 기재는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하여 편찬한 것이라 본다. 즉 이것은 낙랑의 한씨가 만든 계보를 어환이 잘못 채용했다는 것이다. 고조선(기씨조선)에는 그러한 전설이 없었는데 낙랑 한씨가 당시 유행하는 가문을 치장하기 위해 조선왕의 후계자를 칭하면서 가작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에 있는 기자 무덤, 기자정전유적, 기자세계보는 모두 후대 사람이 위조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마니시는 기자 동래는 물론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존재도 부정하였다. 이미 시라토리가 기자 동래를 부인하면서 부왕·준왕의 이름도 『易經』에서 따온 것으로 보면서도 고조선의 기원이나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모호하게 한바 있다.²⁷⁾ 이마니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만조선 이전 조선의 역사가 기록된 『위략』의 사료적 가치도 낮게 평가하며 기자에서 준왕까지 40대가 이어왔다는 기록도 낙랑 한씨 계보에 근거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마니시가 기자 동래를 부정한 것은 우리학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마니시는 기자 동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魏略』의 사료적 가치도 불신하였다. 『三國志』 한전은 『魏略』을 인용하여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이 연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주왕실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등 윤색된 구절이 나타

27) 白鳥庫吉, 「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 『東京日日新聞』 1910.8.31, 1910(『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난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고조선과 연나라의 대립, 고조선 부왕이 통일제국인 진나라와 구체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모습, 준왕은 위만이 망명해오자 서쪽 변방을 지키게 했다가 나라를 잃는 과정 등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는 고조선의 역사상이 기록되어 있다. 일부 윤색된 구절이 있더라도 『魏略』의 사료적 가치와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과 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마니시는 어환의 『魏略』에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하여 기자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면서 『三國志』 및 배송지 주의 기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졌다고 주장한다. 『三國志』 한전에 인용된 위략 기록과 『三國志』에 기록된 기자와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내용	비고
『三國志』 韓傳 所引 『魏略』	○ 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燕止之，不攻。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朝鮮遂弱。及秦并天下，使蒙恬築長城，到遼東。時朝鮮王否立，畏秦襲之，略服屬秦，不肯朝會。否死，其子準立。二十餘年而陳·項起，天下亂，燕·齊·趙民愁苦，稍稍亡往準，準乃置之於西方。及漢以盧綰爲燕王，朝鮮與燕界於 涓水。及綰反，入匈奴，燕人衛滿亡命，爲胡服，東度涓水，詣準降，說準求居西界，(故)[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屏。準信寵之，拜 爲博士，賜以圭，封之百里，令守西邊。滿誘亡 黨，衆稍多，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求入宿衛，遂還攻準。準與滿戰，不敵也。 ○ 魏略曰：其子及親留在國者，因冒姓韓氏。準王海中，不與朝鮮相往來。 ○ 魏略曰：初，右渠未破時，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東之辰國，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亦與朝鮮 貢蕃不相往來。	昔箕子之後朝鮮侯
『三國志』 韓傳	○ 準既僭號稱王，爲燕亡人衛滿所攻奪 ○ 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 ○ 其後絕滅，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漢時屬樂浪郡，四時朝謁。	
『三國志』 濊傳	○ 昔箕子既適朝鮮，作八條之教以教之，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其後四十餘世，朝鮮侯(淮)[準]僭號稱王。陳	其後四十餘世，朝鮮侯準

	勝等起，天下叛秦，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燕人衛滿，魁結夷服，復來王之。漢武帝伐滅朝鮮，分其地爲四郡。自是之後，胡·漢稍別。	
--	--	--

【표 1】 『魏略』 과 『三國志』 의 기자 후손 기록

『魏略』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왕을 기자와 연결시킨 유일한 구절은 ‘昔箕子之後朝鮮侯’이다. 여기서 ‘箕子之後’를 ‘기자의 후예’로 해석하면서 ‘기자-조선후-부왕-준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연결되는 되는 것이다. 그러나 ‘箕子之後’는 ‘기자 이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²⁸⁾ 이외에 『三國志』 한전에는 준왕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기자와 관련된 구절은 없다. 『三國志』 예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가서 금법팔조를 행한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40여 세를 지나 조선후 준이 왕을 일컬었다고 기록했다. 『魏略』에 의하면 조선의 통치자가 왕을 칭한 것은 전국시대 연나라와 대립하던 기원전 320년 경이기 때문에 두 기록은 차이를 보인다. 『三國志』 예전의 기록은 『魏略』의 기록을 축약하면서 오류가 난 것인지 준왕 이전 다시 대외적으로 왕호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마니시가 주장한 것처럼 『魏略』이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하여 기자의 자손에 대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히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부왕과 준왕의 존재나 40대의 계보는 기자와 무관하게 전해지던 고조선의 자체 전승이었는데 기자조선설의 확산으로 기자의 후손으로 윤색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이마니시 류의 고조선 연구와 문제점

4.1 고조선 계통 문제

이마니시가 단군을 허구라고 보고 부정한 것은 그의 조선사 인식과도 관련된다. 이마니시는 조선민족이 기본적으로 혼성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남부 ‘韓民族’이라고 보았다. 즉 ‘한민족’의 구성원인 백제(마한), 신라(진한), 가야(변한)는 ‘부여종’의 한 갈래인 ‘예맥

28) 鄭寅普, 「五千年間 朝鮮의 ‘얼’」 『東亞日報』 1935년 1월 29일~31일, 1935 ; 1946,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57~63쪽.

족' 국가 고구려와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가 북방민족의 신화인 단군 전설을 부정한 것은 조선민족에게서 북방민족의 그림자를 지우는 작업이기도 했던 것이다.²⁹⁾

이점은 같은 시대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와 대조를 이룬다. 이나바는 조선의 역사를 만선사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한반도는 만몽(滿蒙)의 연장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이나바는 조선 민족의 주체를 이룬 한종족(韓種族)은 동호계(東胡系)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호민족이 장백산(백두산)을 타고 내려와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것이다.³⁰⁾

이마니시는 1919년 교토제국대학에서 조선사를 강의했는데 이때 발표한 강의원고는 1934년 『朝鮮史の葉』에 「上古一原始時代及び開國傳説」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이마니시의 조선 개국 및 단군, 기자개국설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에는 북방에 조선, 남방에 진번, 동남에 진국, 동방에 임둔이 있었으며 임둔은 濊족이며 조선, 진번, 진국은 韓족의 나라라고 보았다. 조선은 전국시대 열수(대동강)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한과의 경계인 패수는 청천강인데, 청천강~자비령까지는 공지로 위만의 초기 거주지라 보았다. 위만은 남쪽의 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대동강 북쪽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위만 이전의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조선과 이후 위만조선은 성격이나 강역이 다르다고 보았다. 즉 전자는 한강(옛 대수) 유역을 중심으로 한 韓種族의 나라이고 후자는 열수(대동강)를 중심으로 한 중국민족의 나라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이마니시는 고조선을 위만조선과 그 이전 기원전 3세기의 조선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조선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중국 선진문화의 전파를 중요한 動因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문화가 전파되는 거점으로서 낙랑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또한 그는 낙랑군의 漢族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현재 조선민족에 합류한 일부 흐름으로 간주하였다.³¹⁾

이러한 이마니시의 고조선 인식은 그가 집필로 참여한 『朝鮮半島史』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편찬사업은 최초의 2년에서 2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집필진도 대폭 교체되지만 이마니시는 편집주임 중에서 유일하게 교체되지

29) 심희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297~306쪽.

30) 稻葉岩吉, 1925, 「朝鮮民族史」 『朝鮮史講座 : 分類史』, 재인용.

31)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역사』 115, 185~186쪽.

않았다. 원래 4편으로 구상했던 조선반도사는 편집주임의 논의를 거쳐 전편 6편으로 재구성되었는데 통일신라 이전의 세편을 상세사 묶어 이마니시가 맡게 되었다.³²⁾ 이마니시는 고대사 부분에 해당하는 세편을 맡아 『朝鮮半島史』를 집필하면서 제1편을 '상고 삼한'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단군조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전설로 취급하여 이 시기를 원시시대로 구분하고, 기자조선도 전설로 치부하여 이 시기는 중국인과 조선이 혼재하여 거주하던 부락적 소국의 시기였고 고조선은 위씨조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³³⁾ 이러한 인식은 『朝鮮史』로도 이어져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에 해당하는 시기의 역사 및 고조선의 기원 문제를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이마니시는 조선반도사에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전설로 치부하고, 부여와 고구려의 예맥족과 한중족은 무관한 것으로 서술했다. 고구려를 한중족의 주류인 마한·진한·변한과 구분하여 조선 역사를 반도의 역사로 국한하려 하였다.³⁴⁾

이러한 견해는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일본학계는 3.1운동 이후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독립 주장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조선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함으로써 조선 민족 독립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부정하며, 한편으로 남부의 韓과 일본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다.³⁵⁾ 이마니시가 단군을 부정하는 것도 이러한 일본학계의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한반도의 민족을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으로 나누어 북방의 고구려는 퉁구스족으로 조선의 역사에서 배제하고 남방의 韓種族만 오늘날 조선민족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방민족의 신화인 단군 전승은 오늘날의 조선민족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방민족의 색채를 강하게 띠는 단군전승을 그가 구축한 조선고대사의 토대에서 제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³⁶⁾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신라를 다른 민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국시대가 진전되면서 삼국의 주민들은 여러 면에서 동질성이 두텁게 형성되어 보수성

32) 장신, 2009,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369~371쪽.

33) 김성민, 「해제 :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10~13쪽, 25~26쪽.

34)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아카데미, 118쪽.

35) 오영찬, 2019,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한국 상고 민족 담론의 장안-」 『한국문화연구』 37, 116~117쪽.

36) 심희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304~306쪽.

이 강한 무덤 양식도 석실봉토분이 주류를 이루는 공통성을 띠게 된다. 물질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제도·의복·종교·예술·문자생활 등도 삼국은 서로 비슷한 면을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삼국을 수·당대인들은 三韓이라 하여 한 범주로 파악하였다.³⁷⁾ 또한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도 중국 동북지역의 점토대토기 문화가 한반도 남부까지 널리 확산되었고, 『三國志』·『後漢書』 등에는 고조선의 준왕이 한 또는 마한의 왕이 되었다고 하고, 『三國史記』 신라본기에서는 조선 유민이 진한6부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한과 고조선은 밀접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또한 이마니시는 위만 정권을 중국계로 보아 그 성격을 중국민족의 나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위만이 조선계 출신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바 있다.³⁹⁾ 위만이 건너올때의 복장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으니 기록을 통해 위만과 그의 무리가 조선식 의복을 입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그가 다른 중원계 유이민과 구분되는 조선의 풍속을 간직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준왕이 특별히 위만을 신임하여 박사로 임명한 것은 위만과 그가 거느린 집단이 조선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변방을 맡길만한 실력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2 고조선 영역 문제

이마니시는 고조선 영역과 관련하여 몇편의 논문을 제출하였다. 그중 조선과 관련된 열수의 위치를 고증한 「洌水考」⁴⁰⁾가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기씨조선에서 한 낙랑군시대의 그 일대 하천 명칭 중에서 지나 고적에 나오는三水인 洌水, 溟水, 帶水 위치가 고대 지리상 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마니시는 帶水는 한강으로, 溟水는 청천강으로 보았으며 「洌水考」에서는 洌水가 대동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점제비>를 발견하여 열수를 대동강으로 보는 분명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평양은 왕험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史記集解」에서 三수가 합쳐져 열수가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대동강은 대동강 본류에 해당하는 靜戎江, 沸流江,

37)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3-35쪽.

38) 김남중, 2020, 「점토대토기 문화의 확산과 고조선, 고구려, 한의 관계」 『선사와고대』 64, 45-54쪽.

39)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서영수, 1996, 「위만조선의 형성과정과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9.

40) 今西龍, 1929, 「洌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能城江의 세 강이 합류하기 때문에 열수는 대동강이 적합하다고 이해했다. 열수 유역은 한반도에서 燕·齊와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으로 가장 빨리 지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전국 연나라의 억압으로 조선의 중심은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보았다. 또한 이마니시는 낙랑군 조선현치는 지금의 강북 평양 근처에 있었으며 대동강면의 토성은 고구려의 위협으로 옮겨간 군치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고조선의 남계와 관련하여 진번군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설치되었으며 치소인 靑縣은 금강유역에 있었다고 보았다.⁴¹⁾ 진번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조선후기 이래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일본학계에서는 초기 연구를 주도했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⁴²⁾와 나카 미치요(那珂通世)⁴³⁾는 진번 재북설을 주장한바 있다. 즉 靑縣을 압록강 상류 근처로 비정하고 진번군은 창해군이나 현도군과 관련 있다고 본 것이다.

이마니시와 비슷한 시기에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⁴⁴⁾는 진번군을 충청도 일대에 비정한바 있다.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⁴⁵⁾도 처음에는 진번군의 위치를 동가강 유역으로 이해하다가 다시 진번을 韓族인 馬韓의 전신으로 이해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걸쳐 있다고 재남설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 일본학계의 진번 위치에 대한 논의가 점차 재남설로 정리되는 연구 경향은 한군현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를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확대해 본 것이다.

이마니시는 진번 재남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백남본 『史記』 朝鮮列傳을 검토하기도 하였다.⁴⁶⁾ 『史記』 조선열전에는 “(우거왕은) 眞番 주변의 여러 나라들[衆國]이 글을 올려 天子를 알현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게 했다.”⁴⁷⁾는 기록이 있다.

이마니시는 백남본 『史記』부터 북송본에는 ‘眞番旁衆國’이라고 쓰여

41)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31~268쪽).

42) 白鳥庫吉, 1912,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2-2, 126~133쪽(1970, 『白鳥庫吉全集3 :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288~295쪽); 白鳥庫吉·箭内互, 1913, 「第一篇 漢代の朝鮮」 『滿洲歴史地理』 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 3~12쪽.

43)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 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 5-4, 45~46쪽.

44) 稻葉岩吉, 1914, 「眞番郡の位置」 『歴史地理』 24-6; 1940, 『滿洲國史通論』, 日本評論社(서병국 편역, 2014, 한국학술정보, 71쪽).

45) 池内宏, 1948,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史學雜誌』 57-2:3(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吉川弘文館, 109~150쪽).

46) 今西龍, 1921, 「百衲本史記の朝鮮傳について」 『藝文』 12-3(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69~276쪽).

47) 『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그는 眞番은 『史記』에 3번 정도 나오고 한사군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으나 辰國은 『史記』, 『漢書』 조선전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현행본 『史記』에 ‘辰’을 ‘衆’이라 잘못 쓰는 일이 생겼다고 보았다. 그리고 『漢書』는 『史記』의 ‘眞番旁衆國’을 ‘眞番과 그 주변의 辰國’이라 보고 ‘旁’을 빼고 ‘眞番辰國’이라 썼다고 보았다. 또한 진국은 현재의 경상도 방면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마니시는 백납본 『史記』 기록이 진번과 한 영토 사이의 조선의 존재를 명백히 말해준다고 보았다. 즉 이마니시는 이를 통해 고조선을 평안도 지역으로, 진번을 충청도와 전라북도로, 진국을 경상도로 각각 비정한 것이다.

이러한 위치 비정은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이마니시는 열수를 대동강으로 비정하였는데 열수 기록을 모두 대동강으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山海經』은 “朝鮮은 列陽 동쪽에 있고 바다의 북쪽이며 山의 남쪽이다. 列陽은 燕에 속했다.”⁴⁸⁾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열수는 대동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열수를 요동지역의 강으로 비정하면 연나라가 천산산맥 이서까지 진출했고 고조선은 천산산맥 이동으로 후퇴한 당시의 정황과 일치한다. 선진문헌의 열수는 고조선이 요동지역에 있을 때의 강 이름이며 한대의 열수는 고조선이 중심지를 이동한 이후 대동강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⁴⁹⁾

이마니시는 백납본 『史記』의 “眞番旁辰國”이 맞는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北宋本 『史記』가 나오기 전인 983년에 완성된 『太平御覽』에는 “眞番旁衆國”이라 기록되어 있어 “衆國”이 더 원본에 가까운 기록으로 보인다.⁵⁰⁾ 현재 우리학계에서는 진번군의 위치에 대해 재남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황해도 혹은 황해도와 경기북부로 보고 있다.⁵¹⁾ 이마니시의 주장처럼 진번군을 충청도나 전라도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마니시는 진국의 위치를 경상도로 이해했지만 진국이 존속했던 기원전 2세기의 한반도 중남부지역은 세형동검문화가 발달했던 단계로 이시기 금강과 영산강유역에서 청동유물과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진국의 지리적 위치 역시 충남·전라도지역 일대가 유력하다.⁵²⁾ 고조선

48) 『山海經』 卷12, 海內北經,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49)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 조원진, 2020,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과 요동」, 『선사와 고대』 62.

50) 박대재, 2005, 「三韓의 기원에 대한 사료적 검토」 『한국학보』 31, 5-11쪽.

51)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조원진, 2021,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선사와 고대』 66.

52) 이현혜, 1984, 『삼한사회형성과정연구』, 일조각, 37쪽.

의 영역과 한사군의 위치를 최대한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려 했던 이마니시의 주장은 문헌·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마니시는 일본학자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의 기자 연구 역시 일본 학자 중에서 기자 문제를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단군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기자 동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이 있었고, 남에는 진번, 진국, 임둔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마니시는 위수의 『魏書』에 단군전승이 없었다고 보지만 『魏書』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은 위수의 『魏書』 외에 많은 문헌이 있었다. 단군의 실체에 대해 이마니시는 왕검은 신선의 호칭이고 지명인 ‘왕험’에서 따온 것이며, 해모수는 왕검선인의 본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三國遺事』의 사례처럼 본래 고조선의 도읍 명칭은 왕검성이 맞는 표기로 보인다. 단군을 해모수와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군의 아들 부루와 뒷날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를 동일 인물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마니시는 단군 전승에서 불교적 요소는 적으며 구조를 보면 字句 상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고 했으나 그가 언급한 도교적 요소는 단군 전승의 원형이 아니라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마니시가 기자 동래를 부정한 것은 우리학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마니시는 기자 동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魏略』의 사료적 가치도 불신하였다.

일부 윤색된 구절이 있더라도 『魏略』의 사료적 가치와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과 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마니시는 어환의 『魏略』에 낙랑 한씨 위계보에 근거하여 기자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면서 『三國志』 및 배송지 주의 기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졌다고 주장한다. 『魏略』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왕을 기자와 연결시킨 유일한 구절은 ‘昔箕子之後朝鮮侯’인데 ‘箕子之後’는 ‘기자 이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마니시는 위만 이전의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조선과 이후 위만조선은 성격이나 강역이 다르다고 보았다. 즉 전자는 한강(옛 대수) 유역을 중심으로 한 韓種族의 나라이고 후자는 열수(대동강)를 중심으로 한 중국민족의 나라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분과 한강에 중심지를 설정하는 것은 오늘날 근거를 상실한 견해이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고조선을 평안도 지역으로, 진번을 충청도와 전라북도로, 진국을 경상도로 각각 비정하였다. 그러나 우리학계에서는 진번군의 범위에 대해서는 황해도 혹은 황해도와 경기북부로 보고 있으며 진국의 위치는 충남·전라도지역 일대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고조선의 건국시기 및 영역을 축소하고 한사군의 위치를 최대한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려 했던 이마니시의 주장은 문헌·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일제강점기 일본의 단군 부정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론 -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 연구의 주요 내용
3. 오다 쇼고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이마니시 류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맺음말

1. 머리말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사 왜곡을 통해 한반도 통치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통칭 ‘식민사관’으로 통하는 역사작업 중 일제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분야는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왜곡이었다. 만약 단군과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가 실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전되던 것이고, 고조선의 역사가 단군의 시기까지 소급된다면, 한국사 역사 왜곡작업의 첫 단추를 자기들 마음대로 끼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강점 하에 있는 조선의 역사가 본토인 일본사보다 더 오래되고 심오한 문화를 가져서는 안 되었다. 이에 따라 상고시대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에 강탈당하였고,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논설과 함께 단군부정론이 제기되었다. 강정기 시기에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왜곡에 가장 앞장섰던 일본인 학자로는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들 수 있다.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사관을 창안하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식민교육을 강의하던 대표적인 식민사학자이다. 1896년에는 일본에서 제일고등학교 예과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189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곧 퇴학하였다. 이후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장, 제1고등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08년에는 대한제국 정부의 초빙으로 대한제국 학부 서기관이 되었고,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 편집위원으로 편집국에 근무하며 역사 교과서 편찬에 종사했다. 1918년에는 조선반도사 편집사업에 참여했고, 1923년에는 조선사학회를 조직하였으며, 조선제국대학 창립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자 예과 부장으로 부임하였고,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 위원이 되었다. 1932년 퇴직 후에는 숙명여대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오다 쇼고의 주요 저작물로는 『조선사요략』(1915), 『조선총독부편찬 교과서개요』(1917), 『조선사강좌 이조정쟁약사』(1923), 『조선사강좌 조선교육제도사』(1924), 『조선사대계 최근세사』(1927년), 『조선지나(朝鮮支那)의 문화연구』(1929), 『조선반도의 역사』(1930), 『조선소사』(1931) 등이 있다. 이들 저술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축소하고, 식민사학적 소견을 드러내었다.

1927년 『조선사대계(朝鮮史大系)』에서도 단군은 중국의 고대 사료에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서 단군 및 단군조선을 부정하였다.⁵³⁾ 그리고 단군전설은 묘향산 산신과 평양선인(平壤仙人)의 전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평양의 개벽연기 전설이라고 평한다.⁵⁴⁾ 이와 같은 그의 단군부정론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역사적 주류로 인식되면서 식민사학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 ~ 1932]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최초로 한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인물이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사학’ 강좌의 담당 교수를 역임하며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남긴 그에 대해 학술사적 관점에서 당시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서 평가받아 왔다.⁵⁵⁾ 그는 1903년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조선사를 연구하였으며, 1906년 한국에 건너와 신라의 경주를 답사하기도 했다. 그 후 교토제국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임

53) 小田省吾, 『朝鮮史大系』, 1927, 31~33쪽.

54) 小田省吾, 1927, 위의 책, 91~109쪽.

55) 정상우,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한국학연구』 제62집, 한국학연구소, 2021, 11쪽.

명되었으며,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설립되자 조선사 교수가 되었다.

그는 『단군고(檀君考)』등을 통해 단군을 부정하였고,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에서는 고조선의 영역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대 영역으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임나강역고(加耶疆域考)」를 통해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백제국도한산고(百濟國都漢山考)」·『신라사연구』·『백제사연구』·『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の研究)』 등을 통해 한국고대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을 선 인물이다.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는 단군과 고조선 역사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철저하게 단군과 단군조선 및 기자조선을 부정하였으며, 고조선의 초기 역사를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와 항쟁하는 시기로 한정하였다. 이들의 견해 중 현재 한국 고조선학계와 일치하는 것은 기자조선 관련한 사항이다. 현재 고조선학계에서는 기자조선설은 한(漢)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위만조선과 자국의 연관성을 두어 통치에 이롭기 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⁶⁾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고조선사의 체계 속에서 기자조선을 제외하게 되면, 위만조선에 앞선 시기는 모두 단군조선이 된다. 이마니시 류는 단군을 부정하였고, 단군조선 시기의 영역을 크게 축소하여 왜곡하는 등 식민사학 정립에 큰 역할을 한 학자이다.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는 문헌 기록의 불충분 등의 근거를 두어 단군을 부정하였다. 더군다나 이마니시 류는 고조선[단군조선]의 초기 역사를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와 고조선의 항쟁 시기로 한정하였으며, 그 영역조차 축소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두 학자의 단군과 고조선[단군조선]사에 대한 역사 왜곡의 논설과 그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56) ‘기자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문헌은 前漢代에 편찬된 『尙書大傳』은 본서에서 伏生の撰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복생이 분서갱유로 잃어버린 『상서』를 前漢 文帝에게 받칠 때 『상서』에 최초 주석서인 『상서대전』의 편찬은 복생 사후 복생의 문도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위만조선이 멸망한 때로서 고조선을 중국에 연계시키기 위해 箕子東來說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상서대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현수,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9,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12, 159~163쪽; 오현수, 「箕子傳承의 형성과정 연구」, 『한국사학보』 제65호, 고려사학회, 2016 참조.]

2.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 연구의 주요 내용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는 일제강점기에 단군과 고조선사의 역사 왜곡에 앞장을 선 대표적인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이 두 사람은 『삼국유사』에 기재된 단군 전승을 고려시대에 일연이 창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하여 이마니시 류는 단군조선의 영역과 역사 전개에 있어서도 신빙성없는 근거들을 내세우며 왜곡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오다 쇼고는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이 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사의 왜곡과 원활한 식민통치 수행을 위해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朝鮮史)』를 편찬하고 보급하기 위한 곳이었다. 조선사편수회에서는 총 9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조선사의 편찬 형식과 구분, 체제, 방침, 작업의 감독, 일정 등을 의논하였다. 이 중 8차 회의(1934)에서 오다 쇼고는 단군에 대하여 『동국통감』에서 ‘외기(外紀)’로 취급한 것을 들어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등, 한국의 상고사를 없애려는 작업을 했다는 평가⁵⁷⁾를 받고 있다.

단군에 대한 그의 견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1926년에 발표한 『문교(文教)의 조선』 중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이다.⁵⁸⁾ 『문교의 조선』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관변단체였던 조선교육회의 기관지로 1925년에 창간된 연속 간행물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이유를 대략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단군부정론’을 입론화시킨 상태에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에 불과하다.

그는 우선, 단군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삼국유사』는 불교계의 승려가 날조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이율곡, 이익, 안정복, 한치윤, 윤정기 등이 단군 전승을 불신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이율곡, 이익, 안정복 등은 모두 성리학자로서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삼국유사』의 단군 전승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의 전승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단군 전승이 일연이라는 승려가 작성한 『삼국유사』에서 불교적 윤색이 가미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더라도, 은연중 자신의 색채

57) 최혜주, 「小田省吾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인식」, 『동북역사논총』 27호, 동북아역사재단, 2010, 296~297쪽.

58)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京城: 朝鮮教育會, 1926.

와 인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기술된 단군 전승에 불교적 색채가 있다는 것이 단군 전승이 창작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단군 전승이 기술된 충렬왕 이전에 이에 관한 전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부식이 쓴 묘향산의 보현사(普賢寺) 비문에는 단군 전승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태백산이 묘향산이라면, 김부식이 쓴 묘향산의 보현사(普賢寺) 비문에 단군 관련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부식은 신라계 유학자로서 『삼국사기』에 단군 전승을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현사의 비문에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방 중심의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군 전승을 일부러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태백산을 묘향산이었다는 근거도 없다. 이 둘을 연관시켜 보는 시각은 일연 등 일련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태백산을 각기 다른 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 자신만의 근거로 비정을 했을 테지만, 비정이 잘못되었다면, 잘못 비정의 문제가 있을 뿐, 그것이 단군부정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을 인종 시기로부터,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충렬왕 시기까지 시간적 격차인 140년이다. 140년이 지난 시점에 전승되어 오던 단군 전승에 불교적 색채가 들어가면서 묘향산을 결부시켜 보려는 시도에서 일연은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언급했을 경우도 있다. 오다 쇼고는 충렬왕 이전에 단군 전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 등의 예에서 보면 최소한 고구려 시기에 단군 전승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존재는 오다 쇼고의 입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단군은 한국 전체의 조상이 아니라 고구려 일국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다 쇼고의 한반도 역사에 시각은 분열주의적 시각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쪼개 보면서 북방은 중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남방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논리로 연결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신라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역사로 통합된다. 게다가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한반도 남부의 백제계와 신라계의 사람들까지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이후 현대의 한국인으로까지 역사적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

문에 단군이 고구려의 조상이라면, 단군은 현대 한국[북한 포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단군 전승은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져 『삼국유사』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고려의 전신인 고구려 시조의 출현을 단군과 결부시키고 이를 불교의 제석천(帝釋天)에 갖다 붙이면서 고려는 불교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토였던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단군 전승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고려 사람들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자긍심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단군 전승만큼 유용한 아이템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일연은 기존에 있던 단군 관련 서적인 『고기(古記)』와 『위서(魏書)』에 기술된 단군 전승을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환인을 제석으로 본다든지 하면서 승려의 입장에서 해석하였을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오다 쇼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사정이 단군부정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섯 번째로 오다 쇼고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단군 전승은 국가적 색채를 더욱 짙게 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연하게 선전했다고 비판한다. 세종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삼국유사』에 비하여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세종 때 평양에 단군사(檀君祠)를 세워 동명왕(東明王)과 함께 단군을 제사지냈고, 세종대의 『용비어천가』와 문종대의 『고려사』에서도 모두 단군조선의 시대를 인정하였고, 성종대의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여러 곳에 걸쳐 단군의 유적지라면서 그 유래를 기술해 놓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외국과 교섭을 하면서 민족적 정신에 강렬한 경각심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단군 전승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와 한말 시기 단군의 부각에 대한 오다 쇼고의 견해를 수긍하더라도 이러한 견해 또한 단군 전승의 비 역사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단군이 실존했든, 창작된 것이든, 조선시대에 한말에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단군 전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단군 전승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그것이 단군 전승의 실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 오다 쇼고의 단군에 관한 인식을 검토해 보았고, 이어서 이마니시 류의 견해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1929년에 출간한 『청구설총(靑丘說叢)』

』에 게재된 「단군고」에서 단군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단군 전승에 대해 유교와 도교에 의해 윤색된 것으로, 단군은 평양 지역에서 신앙되던 선인(仙人)이라고 하였다.⁵⁹⁾

그리고 1934년에 발행된 『조선사의 간[朝鮮史の葉]』에서 다시 한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선사의 간』에서는 한반도의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통사를 서술하였다. 이 중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이라는 글은 단군과 고조선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자동래설을 부정하면서 낙랑(樂浪)의 한 유력 가문이 조선왕의 후계자로 칭해서 가작(假作)한 것이라 하였으며, 평양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왕검선인(王儉仙人)을 두고서 고려의 고종(高宗) 때에 단군이라고 이름하여 고조선을 개국한 인물로 했다고 주장하였다.⁶⁰⁾

그리고 고조선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존재했던 나라이고, 이 조차도 연나라에 패퇴하는 약한 나라로만 그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고조선은 연나라의 세력에 압도되어 열수(烈水), 즉 대동강 남쪽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나라는 강성할 때에는 대동강 북쪽까지 영유했다가, 한나라가 일어나자 패수(溍水)를 경계로 했는데, 이 패수를 청천강으로 보았다. 한나라와 조선 사이의 빈 공토인 진고공지상하장(秦故空地上下鄣)의 영역도 청천강 ~ 자비령 일대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연나라의 침입 범위와 패수와 진고공지상하장에 관한 그의 위치 고증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연나라의 침입 범위는 연나라의 직접적인 문화 이식이 어느 영역에까지 미쳤는지가 관건이고, 진고공지상하장의 영역도 진나라의 군사적 주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고조선의 역사성을 전국시대 중반 경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고고학 발굴과 그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인해 고조선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생긴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마니시 류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고조선의 영역과 역사성을 축소하려는 목적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상 오다 쇼고의 ‘단군부정론’ 과 이마니시 류의 ‘고조선 영역 축소

59)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74, 한일관계사학회, 2021

60) 이마니시 류의 단군관에 대해서는 이미 체계적으로 분석·비판된 바 있어서(이근우, 2021, 위의 논문), 본고에서는 그의 고조선[단군조선]관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론'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다. 오다 쇼고의 주장의 핵심은 고려 후기에 일연이라는 불교계 인물이 몽골의 침입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허구의 단군 전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마니시 류 주장의 핵심은 고조선 [단군조선]이 중국 세력과의 길항 작용 속에서 그 영역이 대동강 일대에서 청천강 일대까지의 정도로 축소되었고, 이와 반대로 중국 세력은 청천강에서 대동강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연구자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 '단군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오다 쇼고의 단군 전승에 대한 언급 중에서 주목해서 검토할 만한 주장은 고려 후기 불교계 인물이 날조했다는 것, 충렬왕 이전에 단군 전승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광범위 오다 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오다 쇼고의 주장처럼 『삼국유사』의 기술된 단군 전승에는 불교적 윤색이 가미되어 있다. 환인을 제석이라고 했던 것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듯이 불교적 색채를 언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자가 일연이라는 승려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누구라도 역사서를 기술할 때 자신의 개인적 인식이나 감정, 사상적 배경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일연은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단군 전승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색깔이 더해졌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를 무턱대고 부정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는 '식민사학'이라는 정답 하에 거기에 맞게 자신의 논지를 전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단군 전승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가와 유가 및 재래의 신앙적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식민사학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고기」의 단군 전승에서 환인이 환웅에게 준 천부인(天符印) 3개는 도교의 호부(護符)의 일종이라고 하고, 환웅이 데리고 온 풍백·우사·운사도 중국 문헌⁶¹⁾에 기술되어 있다는 점⁶²⁾이 밝혀졌다. 그리고 곰이 죽과 마늘을 먹고

61) 『舊唐書』, 「狄仁傑傳」, “天子之行, 千乘萬騎, 風伯清塵, 雨師灑道.”; 『左傳』, 「昭公」 17年, “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雲名.”

62) 조정철, 「단군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

사람이 되는 것은 도교에서 약을 먹고 신선이 되는 것과 관련되고, 신과 곰의 교합하는 부분도 불교적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는 평가⁶³⁾가 있다. 또한 환웅이 내려왔다는 태백산은 산약신앙, 신단수는 수목신앙, 환인은 천신신앙이나 태양신앙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⁶⁴⁾

한편 단군 전승과 유교와의 관련성 연구도 제기되었다. ‘홍익인간(弘益人間)’ 과 ‘재세이화(在世理化)’ 라는 어구는 유교적인 색채를 보여준다⁶⁵⁾는 평가가 있다. 비슷한 시기의 이승휴는 『제왕운기(帝王韻紀)』를 기술할 때 ‘상제(上帝) 환인(桓因)’ 이라고 하였는데, 상제는 유교에서 하늘의 주재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⁶⁶⁾ 이렇듯 같은 신화적 내용이라도 기술자의 사상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기술의 내용과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술적 차이를 가지고 신화의 오리지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연이 단군 전승을 기술할 때 불교적 용어를 쓰고, 불교적 색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다음으로 오다 쇼고가 근거로 제시한 『삼국유사』 이전에 단군 전승을 기록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단군전승이 고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오다 쇼고의 주장대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시기 즈음에 일연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지금과 같은 단군 전승이 완성되었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이전에 원시 형태의 단군 전승이 과연 없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 태도 역시 일반적인 학자의 태도는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신화학, 고고학, 문헌학 방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신화학적 방면에서는 동물을 조상으로 인식하는 조수(獸祖) 신화는 고려시대의 세계관으로는 형성될 수 없고, 그 이전의 고대로부터의 기인했다는 견해가 있다.⁶⁷⁾ 그리고 응녀는 만주와 시베리아 및 동유럽에서 지중해까지 모계사회에서 부족의 섬김을 받던 신격 존재라는 견해도 나왔다.⁶⁸⁾ 단군 전

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97~98쪽,
 63) 김재원, 「단군신화의 사상적 배경」, 『한국과 중국의 고고미술』, 문예출판사, 2000.
 64) 袴田光康,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일본의 천신신앙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연민학지』 14, 2010, 470쪽.
 65) 이근우, 2021, 앞의 논문, 28쪽.
 66) 조경철, 위의 논문, 2005, 98쪽.
 67) 조법중, 「古朝鮮關聯研究의 現況과 課題-단군인식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 1999; 서영대,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승의 기본 줄거리는 곰이 여인으로 변해 단군을 낳는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신석기문화를 담당한 고아시아족의 곰숭배 사상과 연결된다는 견해⁶⁹⁾로 이어진다. 또 한편 천손강림·세계산(世界山)·세계수(世界樹) 등의 알타이계의 신화적 요소가 단군 전승에는 삼위태백·신단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환웅이 웅녀의 배우자가 되는 이야기로 발전되었다고도 한다.⁷⁰⁾

그리고 고문화 혹은 고고학 방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 단군 전승의 사실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후한 시기에 제작된 중국 산둥지역 무씨 화상석과의 관련성 제기⁷¹⁾, 그리고 집안 지역의 고구려 고분 벽화가 단군신화와 연결된다⁷²⁾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군신화 관련 소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고구려 고분은 5세기 초 ~ 중반으로 편년되고 있는 각저총(角觥塚)과 장천(長川) 1호분이다.

각저총 벽화에는 신성한 나무와 나무에 새가 깃들고 있는 모습, 곰과 호랑이가 함께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의 무용총의 벽화 그림은 중국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각저총에서 보이는 그림의 내용은 고구려의 독자적 세계관과 풍속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⁷³⁾ 장천 1호분에서도 곰이 신단수(神檀樹)와 연결될 수 있는 나무가 등장하고, 웅녀와 같은 여인이 중앙의 나무에서 기원하는 모습, 굴속에 곰같은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단군신화와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다.⁷⁴⁾ 이러한 모습은 평양 일대의 고분 벽화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집안 일대에서 단군 전승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동예에 제천(祭天)과 제호(祭虎)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제사가 나온다.⁷⁵⁾ 이와 같은 동예에서의 호랑이 숭배 신앙과

68) 김재희, 「유라시아 곰신앙과 단군신화의 썩과 마늘을 통해 본 웅녀의 재해석」, 『한국민속학』 67, 한국민속학회, 2018, 33쪽.

69) 김정배, 『고조선의 주민구성과 문화적 복합』,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출판부, 1973.

70) 조법중, 위의 논문, 1999, 368~369쪽.

71) 金載元, 『檀君神話의 新研究』, 探求堂, 1976.

72) 강룡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력사과학』 96-3.

73) 조법중, 앞의 논문, 1999, 374~375쪽.

74) 강룡남, 1996, 앞의 논문, 54 56쪽; 조법중, 선사와 고대, 앞의 논문, 160쪽.

75) 『三國志』, 「魏志」, <東夷傳>,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擊銀花廣數寸以爲飾. … 漢末更屬句麗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전해 내려오던 곰으로 대표되는 단군 전승이 고구려 지역에서 기원전 5세기 이전에 융합되어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한다. 곰과 단군을 믿는 고조선과 호랑이와 산천의 신을 믿는 동예의 자연신앙이 고구려시대에 영역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신앙면에서도 통합이 되어 단군 전승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단군이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종합⁷⁶⁾된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단군 전승에는 환웅이라는 천신 강림과 단군이라는 신선 사상이라는 또 다른 축이 있다.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 구조가 주몽신화를 통해 고구려 시대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조에서 송양(松讓)은 선인(仙人)의 후예라고 하였다.⁷⁷⁾ 그리고 같은 <동천왕>조에서 평양은 선인(仙人) 왕검이 머물던 곳이라고 했다.⁷⁸⁾ 또한 <동명왕>조에서는 주몽이 자신은 천손임을 강조하는 모습⁷⁹⁾이 보인다. 단군 전승에서도 환웅이라는 천신 강림과 단군이라는 신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고구려 시기의 두 사상적 개념이 융합되어 단군 전승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의 서지학적 측면에서 일연이 기술하기 이전의 단군 전승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을 작성할 때 본문 내용이 어디에서 채록한 것인가에 대한 전거를 제시했는데, 단군 전승에 있어서는 『위서(魏書)』와 『고기(古記)』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일연이 단군 전승을 고의로 조작했다면, 『위서』와 『고기』라는 책을 상상하여 기술하였다는 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연이 『삼국유사』 전체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기이」편의 『위서』와 『고기』라는 출처도 진실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편목의 자료적 출처는 명확하다는 점은 「기이」편의 자료 출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일연은 단군 전승을 『위서』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현전하는 『삼국지』의 「위지(魏志)」와 위수(魏收)가 편찬한 『위서(魏書)』에는 단군

76) 이에 앞서 조법중(앞의 논문, 1999, 369~371쪽)은 한국 고대사회에 존재한 동물숭배 전통으로 단군과 관련된 고조선의 곰 및 동예와 관련된 호랑이 등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고구려에 포함되어 고구려 문화 형성의 일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7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조, “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儉.”;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沸流王松讓 … 曰 予是仙人之後 累世爲王.”

78)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조,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7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聖王>조, “恐爲追兵所迫, 告水曰, 我是天帝子, 何(河)伯外孫.”

전승과 관련된 사실이 전하지 않는다. 『위서』에 대해서는 정인보 이래 조위(曹魏)나 왕심(王沈)의 『위서』 계열로 보거나,⁸⁰⁾ 또는 최치원에게 인용되어 국내에 유입되어 있었던 북제(北齊)의 위수가 편찬한 고본(古本) 『위서』로 보는 견해가 있다.⁸¹⁾ 이밖에도 『위서』로 불리는 사서로는 서진(西晉) 때의 왕침이 지은 『위서』, 위담(魏澹)의 『위서』, 위수(魏收)의 『후위서(後魏書)』, 배안시(裴安時)의 『원위서』 등도 일연이 언급한 위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⁸²⁾

이러한 『위서』들은 현재 문헌 자체가 대부분 전하지 않거나, 현존하는 서적에도 단군 관련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에만 ‘위만조선(魏滿朝鮮)’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삼국유사』 「기이」편의 『위서』는 위만조선에서 편찬한 사서라는 입장도 있다.⁸³⁾ 즉 ‘위만조선의 역사서[魏書]’라는 뜻인데,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할 거 같다.

한편 『고기』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적 명칭으로서의 고기, 둘째 신라·고구려·백제 등의 국명을 관칭한 각국의 고기, 셋째 중국의 사서와 대비되는 『해동고기(海東古記)』와 『삼한고기(三韓古記)』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⁸⁴⁾ 다른 한편으로는 고기가 일반적인 고기록에 대한 총칭이 아니라, 같이 인용된 『위서』 「당배구전」, 『통전』 등과 같은 특정 서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⁸⁵⁾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는 이러한 고기류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성립 시기는 고려 혜종과 정종의 이름인 무(武)와 요(堯)가 호(虎)와 고(高)로 피휘가 된 것을 근거로 하여 확인할 수 있다.⁸⁶⁾ 이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최소한 고려 광종 이후에 성서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환인’이란 용어는 ‘제석’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기 이전에 쓰였을 것인데, 7세기 백제 무왕대와 신라의

80) 리지린, 『고조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4, 104쪽.

81) 박대재, 「『三國遺事』 고조선조 인용 『魏書』론」, 『한국사연구』 112, 한국역사연구회, 2001.

82) 박대재, 위의 논문, 2001.

83) 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18-21쪽;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 - 史料批判の再検討 -」, 『韓國文化』 4-6, 6-7쪽; 김성수, 2004,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의 分析」, 『書誌學研究』 29, 218-222쪽.

84)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85)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86) 『三國遺事』 권1, 「奇異」 2, <古朝鮮>조,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중고기에 제석신앙이 성행했으므로 『고기』의 성립 연대를 7세기 이전까지 소급시킬 수는 있다는 견해⁸⁷⁾는 주목받고 있다.

4. 이마니시 류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마니시 류는 조선이 전국시대에 연나라의 세력에 압도되어 열수, 즉 대동강 남쪽까지 후퇴했고 연나라와 진나라는 대동강 북쪽까지 영유했다고 하였다. 진·한 교체기의 혼란이 끝나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영역에서 다소 물러나 패수, 즉 청천강으로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천강에서 자비령까지는 진나라의 옛공지[秦故空地上下障]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근거가 될만한 것은 없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고조선과 연나라의 항쟁 이전 고조선의 역사는 무시되었다는 것, 연나라가 대동강까지 쳐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은 청천강[패수]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진고공지상하장은 청천강에서 자비령 사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하에서는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조선-연나라 항쟁 과정 이전에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 이마니시 류는 『관자(管子)』에 기술된 발조선(發朝鮮)⁸⁸⁾ 등의 기록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 고조선사학계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관자』의 기록은 춘추시대 전후의 존재했던 고조선의 상황을 말해준다는 것이 정설로 잡혀 있다. 위만조선 시기의 물질문화에 계기적 발전을 보여주는 선계 문화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는 세형동검문화로, 이는 연나라 진개의 침입 이후 와해된 요령성의 비파형동검문화의 후속 문화이다.⁸⁹⁾ 즉 검병두식(劍柄頭式)

87) 조정철, 앞의 논문, 2005, 118쪽.

88) 『管子』 卷第23, 「揆度」 第78,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筴,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礪磳, 一筴也, 燕之紫山白金, 一筴也, 發朝鮮之文皮, 一筴也, 汝漢水之右衢黃金, 一筴也, 江陽之珠, 一筴也, 秦明山之曾青, 一筴也, 禹氏 邊山之玉, 一筴也.”; 卷第24, 「輕重甲」 第80,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 游於天下, 而傷寡人, 寡人之行, 爲此有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冠服而以爲幣乎. 禹氏不朝, 請以白璧爲幣乎. 崑崙之虛不朝, 請以璆琳琅玕爲幣乎. 故夫握而不見於手, 含而不見於口, 而辟千金者, 珠也, 然後八千里之吳越可得而朝也. 一豹之皮, 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懷而不見於抱挾, 而不見於掖, 而辟千金者, 白璧也, 然後八千里之禹氏可得而朝也. 簪珥而辟千金者, 璆琳琅玕也, 然後八千里之崑崙之虛可得而朝也. 故物無主, 事無接, 遠近無以相因, 則四夷不得而朝矣.”

89) 趙鎮先 『細形銅劍文化的 研究』(학연문화사, 2005), 219쪽.

· T자형청동제검손잡이 · 선형동부(扇形銅斧)의 변천이 ‘요서 → 요동 → 한반도’의 순서였다는 견해⁹⁰⁾는 세형동검문화의 전신이 요령 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결국 고조선의 형성 및 초기 과정에 있어서, 그의 문화적 배경은 요서 지역에서 형성된 비파형동검문화⁹¹⁾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²⁾

물론 일제강점기 시기에 학문의 미발달과 고고학 발굴의 부족으로 인해 춘추시대 고조선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실증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축소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가 어디이고, 연나라의 문화가 어디까지 확대되었는가를 통해 연나라 침입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략(魏略)』에서는 연나라의 고조선 침입 이후 연나라의 동쪽 경계를 만번한(滿番汗)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⁹³⁾ 만번한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정약용이 문현(文縣)

90) 오강원, 「遼寧-西北韓地域 中細形銅劍에 관한 研究」, 『清溪史學』 16·1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溪史學會, 2002, 22-24쪽; 吳江原, 「東北亞地域 扇形銅斧의 型式과 視空間的 樣相」, 『江原考古學報』 2, 江原考古學會, 2003, 79-81쪽; 오강원, 「琵琶形銅劍-細形銅劍 T字形 青銅製劍柄의 型式과 時空間的 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1, 韓國上古史學會, 2003, 23-24쪽; 오강원, 「遼寧 ~ 韓半島地域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劍柄頭飾 研究」, 『북방사논총』 2, 고구려연구재단, 2004b, 21쪽.

91)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문화는 기원전 9세기 경에 朝陽을 중심지로 하여, 광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요서의 대부분 지역에 원료와 성제품의 교역망을 형성했다고 한다. 즉 기원전 9~8세기 비파형동검문화는 주요한 유물 요소가 모두 갖추어지고, 요서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多鈕鏡은 祭司長의 儀器이면서, 정치적 권위의 상징물로 작용하여, 이를 부장한 무덤의 주인공은 일정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李清圭, 「東北亞地域의 多鈕鏡과 그 副葬墓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0, 韓國考古學會, 1999, 77-78쪽.)

이러한 비파형동검문화는 기원전 6~5세기에 瀋陽을 위주로 한 요동 지역에까지 직접적 진출을 이루었다.(오강원, 『비파형동검문화와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2006, 429~514쪽.)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중원 세력에 밀려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세형동검문화가 형성된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劍柄頭式·T자형청동제검손잡이·扇形銅斧의 변천이 ‘요서 → 요동 → 서북한’으로 바뀌며 발전하는 양상은 전체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과 양상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고조선 이동설’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92) 이에 관해서는 오현수(『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 - ‘穢貉’·‘發朝鮮’ 조문의 사료 맥락적 분석을 중심으로-, 『史林』 第43號, 成均館大學校 首善史學會, 2012) 참조 바람.

93) 魚豢, 『魏略』(『漢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引),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과 번한현(番汗縣)의 합성어로 보았는데,⁹⁴⁾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해성 동부~요양 서남으로,⁹⁵⁾ 개평(문현)·해성~개평 일대(번한현)로⁹⁶⁾, 요동 지역의 천산산맥 일대로⁹⁷⁾ 비정하여 왔다. 『한서』 「지리지」에 요동군의 속현으로 문현과 번한현이 나온다⁹⁸⁾는 점에서 이들 지역을 요동 지역으로 비정한 이러한 견해는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나라의 침입 이전에 고조선은 요동 지역에서 정가와자유형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정착하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를 지나면서 요동 지역은 새로이 연나라의 문화로 전환된다. 공간적 범위는 철령~무순~안산~대련으로 이어지는 계선의 안쪽에서 기존 요령 지역의 토착 유물이 완전히 배제되고, 전국시대 연나라 유물만이 출토되고 있다.⁹⁹⁾ 그리고 연나라의 침입 이후, 이전의 요동 지역들은 연나라식의 문화 지대로 바뀐다. 요동 북부의 동요하 및 이통하 상류역, 중부의 혼하 및 소자하 유역, 태자하 상류역, 동부의 혼강 유역, 요동반도 남단에서 토착적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갖는 모습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¹⁰⁰⁾가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연나라의 장성의 동단은 현재까지의 발견된 유적으로 보았을 때 부신과 창무의 남쪽 일대까지이고, 『사기』¹⁰¹⁾와 『괄지지』¹⁰²⁾ 등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요양시 북쪽 일대까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¹⁰³⁾ 만

94) 丁若鏞, 『與猶堂全書』(『疆域考』 卷1), 「朝鮮考」, “漢書遼東郡屬縣有文縣有番汗縣. 後漢書遼東郡屬城有汶縣番汗縣, 滿潘汗者, 汶番汗也.”

95) 申采浩(著)/李萬烈(註釋), 1998(1929), 『譯註 朝鮮上古文化史』,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265~266쪽.

96) 盧泰敦, 2000, 앞의 논문, 91쪽.

97) 徐榮洙, 1988, 앞의 논문, 41쪽.

98) 班固, 『漢書』 卷28上, 「地理志」 第8下, <遼東郡>條, “遼東郡, 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 縣十八: 襄平, 新昌, 無慮, 望平, 房, 候城, 遼隧, 遼陽, 險瀆, 居就, 高顯, 安市, 武次, 平郭, 西安平, 文, 番汗, 沓氏.”

이 외에, 문현 관련 기록이 『三國志』·『資治通鑑』·『讀史方輿紀要』 등에, 번한현 관련 기록은 『漢書』와 『說文解字』에 기술되어 있다.

99) 오강원, 앞의 논문, 2011, 12~14쪽.

100) 오강원, 앞의 논문, 2011, 15~21쪽[즉 연나라의 미안구유형 외곽에 사가가유형(진국계 고병두, 철제농기구)·임가보유형(회색계토기)·유가초유형(명도전, 진국계철기)·운가촌유형(명도전, 도씨검, 편경검, 회색계토기)·대전자유형(명도전, 철도자, 삼익유공식동축) 등의 토착 세력이 연나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01) 司馬遷,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102) 『括地志』 卷8, “秦隴西郡臨洮縣, 卽今岷州城, 本秦長城, 首起岷州西十二里, 延褒萬餘里, 東入遼水.”

103) 오강원, 2010, 앞의 논문, 194~196쪽.

약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가 청천강이었다면, 청천강 이북의 영역에서 연나라의 직접적 문화 이식의 양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연나라의 문화와 장성의 위치가 요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은 청천강 [패수]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부정된다. 연나라의 동쪽 경계는 만번한선인 해성과 개평, 천산산맥 일대에 해당한다. 연나라의 변경새도 만번한이라는 자연 경계선 안쪽인 혼하 사이에 축성되어 변방 방어의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기』 조선열전에서 “한나라는 퇴각시, 고새[故塞, 연나라의 변경새]를 수리하고 패수로 국경을 삼았다”¹⁰⁴⁾고 하였기 때문에 요동고새(遼東故塞), 즉 연나라 변경새는 패수의 서안에 있었음도 당연하다.

거꾸로 말하면, 패수는 변경새의 동쪽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현재의 혼하에 해당한다. 『전한기(前漢紀)』에도 “요수를 새로 삼았다”¹⁰⁵⁾고 전하고 있다. 여기에 기재된 요수는 소요수로¹⁰⁶⁾ 현재의 혼하이¹⁰⁷⁾, 새는 전국 연나라가 구축한 변경새라 할 수 있다. 즉, 연나라는 혼하[패수]의 서쪽에 새를 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진고공지상하장은 이러한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의 경계인 패수[혼하]에서 진나라의 요동외요가 관장하고 있던 동쪽 경계지대에 해당하는 영역이 된다. 이에 앞서 진나라는 연나라를 멸하고서는 나중에 진고공지상하장이 된 영역 안에 요동외요(遼東外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고조선을 관장하려 한다.

그런데 요동외요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나라의 동북 방면에서 그 행정력이 비교적 약한 지역 중 진나라와 고조선의 경계가 되는 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진나라의 영역이면서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은 곧, 군사적 주둔지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것의 확인은 진나라의 무기들의 발굴 정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진나라와 그에 속했던 전국시대의 무기들은 주로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¹⁰⁸⁾ 진나라의 무기로는 요령성 관전에서 발견된 진나

104) 司馬遷, 『史記』, 「朝鮮列傳」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溟水爲界, 屬燕.”

105) 荀悅, 『前漢紀』, 「前漢孝武帝紀」 5 卷14, “朝鮮本秦時屬遼東, 漢興以爲其遠難守, 故遼水爲塞.”

106) 酈道元, 『水經注』, 卷14, <小遼水>조, “水出北塞外, 西南流逕遼陽縣, 注遼水.”

107) 吳江原, 1997, 「昌黎縣 位置에 관한 一考察 -古朝鮮 位置문제와 관련하여-」, 『清溪史學』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溪史學會, 42쪽.

108) 평양과 그 인근에서도 ‘진25년’명 동과와 ‘5년계씨’명 동모가 발견되었으나, 이것은 진나라 멸망 이후, 위만조선 성립 이후에 평양으로 전입된 것으로 볼 필

라의 ‘석읍(石邑)’ 명 동과, 요양에서 발견된 ‘진상군수명(秦上郡守)’ 명 과(戈), 무순에서 발견된 ‘여불위(呂不韋)’ 명 모(鉞)가 있다. 그리고 진나라의 것은 아니지만 진나라의 통일 전쟁기 전국 각국의 무기로 신금에서 발견된 ‘위계봉(魏啓封)’ 명 과(戈), 장하에서 발견된 ‘조춘평후(趙春平侯)’ 명 검, 집안에서 발견된 ‘조양안군(趙陽安君)’ 명 검 등이 있다.

그리고 진나라의 화폐인 반양전(半兩錢)도 주로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철령 신태자진 구가대 매납유적, 환인 대전자 주거지, 장백 간구자 적석묘, 집안 태왕릉 부근,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매납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진나라 및 전국 각국의 무기들과 진나라의 화폐 출토의 정황은 진나라 군사의 실질적 주둔지가 압록강 이북 일대라는 것을 말해 준다.

결국, 진나라는 옛 연나라의 영토를 장악하고, 이어서 천산산맥 이동의 토착집단을 격파하고 나서 압록강을 건너 고조선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조선은 위기의식을 느껴 조속히 진나라에 항복했고, 진나라는 이러한 항복을 승낙하여 양국의 경계를 압록강선으로 한정하여 압록강 이북에 변방 수비를 위한 군사들을 주둔시킨 것으로 보인다. 『회남자』에서 ‘동결조선(東結朝鮮)’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조선을 그대로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¹⁰⁹⁾ 또한 『위략』에서는 “조선의 부왕(否王)이 진(秦)나라 조회에 응하지 않았다”¹¹⁰⁾고 하고 있다.

고조선이 이와 같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연나라를 치고 빼앗은 동북 지역 외곽에는 강력한 군사시설보다 약식의 요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외요(外徼)는 그 의미상 국외에 설치된, 변경 밖에 설치된 요인데, 고조선이 외요에 속했다는 표현은 고조선이 중국의 동쪽 변경지대 밖에 속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조선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상, 연나라 이전 고조선[단군조선]의 존재와 고조선 후기 연나라의 침입으로 빼앗긴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마니시 류 견해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애초 이마니시 류에게 있어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복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로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단

요가 있다.

109) 劉安, 『淮南子』, 卷18, 「人間訓」, “見其傳曰 亡秦者胡也, 因發卒五十萬, 使蒙公楊翁子, 將築脩城, 西屬流沙, 北擊遼水, 東結朝鮮.”

110) 魚豢, 『魏略』(『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韓>조 引,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근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조선의 후대 시기만을 인정하였는데, 이 또한 연나라와 항쟁하던 전국시기 후반의 사실만을 인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고조선사 연구 수준으로 보아서도 그의 논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의 단군부정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사 왜곡을 통해 한반도 통치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통칭 식민사관으로 통하는 역사 작업 중 일제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분야는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왜곡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에 가장 앞장섰던 일본인 학자로는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들 수 있다.

오다 쇼고는 1927년 『조선사대계』에서도 단군은 중국의 고대 사료에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서 단군 및 단군조선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단군전설은 묘향산 산신과 평양선인의 전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평양의 전설이라고 평한다. 그리고 1934년에 개최된 제8차 조선사편수회 회의에서 『동국통감』에서 단군 전승을 ‘외기(外紀)’로 취급한 것을 들어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등, 한국의 상고사를 없애려는 작업을 했다.

단군에 대한 그의 견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1926년에 발표한 『문교의 조선』 중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이다. 이 글에서 단군을 부정한 근거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단군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삼국유사』는 불교계의 승려가 날조한 것이다. 둘째, 단군 전승이 기술된 충렬왕 이전에 이에 관한 전설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셋째, 단군은 한국 전체의 조상이 아니라 고구려 일국의 조상이다. 넷째 단군 전승은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져 『삼국유사』에 등장했다. 다섯째, 조선시대에 들어와 단군 전승은 국가적 색채를 더욱 짙게 띠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연하게 선전했다.

그리고 이마니시 류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최초로 한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인물이다. 그는 『단군고』등을 통해 단군을 부정하였고,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에서는 고조선의 영역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대 영역으로 축소하였다. 1929년에 출간한 『청구설총』에 게재한 「단군고」에서 단

군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단군 전승에 대해 유교와 도교에 의해 윤색된 것으로, 단군은 평양 지역에서 신앙되던 선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 발행된 『조선사의 간』의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이라는 글에서는 평양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왕검선인을 두고서 고려의 고종 때에 단군이라고 이름하여 고조선을 개국한 인물로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 부정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신화학, 고고학, 문헌학 방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단군 전승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가와 유가 및 재래의 신앙적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단군 전승에는 초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신화학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단군 전승의 일면목을 알려주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고구려 시기에 단군전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서지학적 측면에서도 일연은 『삼국유사』 전체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기이」편의 『위서』와 『고기』라는 출전도 진실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마니시 류의 고조선의 시공성을 축소하려는 견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는 전국시대의 고조선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조차도 고조선은 전국시대에 연나라의 세력에 압도되어 열수(烈水), 즉 대동강 남쪽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나라는 강성할 때에는 대동강 북쪽까지 영유했다가, 한나라가 일어나자 패수를 경계로 했는데, 이 패수를 청천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에서는 『관자』에 기술된 ‘발조선’ 등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 고조선 사학계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관자』의 기록은 춘추시대 전후의 존재했던 고조선의 상황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전국시대 중후반 경 이전에 단군조선은 실존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위략』이라는 문헌에 연나라의 고조선 침입 이후 연나라의 동쪽 경계를 만번한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요동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연나라의 침입 당시 요동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물질문화상의 변동과도 일치한다. 기원전 4세기를 지나면서 요동 지역은 새로이 연나라의 문화로 전환된다. 공간적 범위는 철령~무순~안산~대련으로 이어지는 계선의 안쪽에서 기존 요령 지역의 토착 유물이 완전히 배제되고, 전국

시대 연나라 유물만이 출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은 청천강[폐수]이라는 것도 자연히 부정된다. 연나라의 동쪽 경계는 만변한 선인 해성과 개평, 천산산맥 일대에 해당한다. 고조선의 영역을 한반도 서북부의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하려는 이마니시 류의 견해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과 단군조선 혹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 복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단군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이 또한 연나라와 항쟁하던 전국시기 후반의 사실만을 인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오늘날 고조선사학계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대부분 청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고조선사의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었으면 한다.